

닻 올린 인천 창조경제

metro®

메트로 2015년 7월 23일 목요일 제3264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22일>

| | | |
|---|---|---|
| 코스피 | 2064.73 | (-18.89) |
| 코스닥 | 776.57 | (-5.42) |
| 금리(국고채 3년) | 1.77 | (-0.01) |
| 환율(원·달러) | 1153.60 | (-0.08) |

# 재벌손자 vs 월급사장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

| SAMSUNG 삼성전자 | | | 애플 |
|---|---|---|---|
| 184조 5661억원 | 시가총액 | | 876조 2524억원 |
| 스마트폰, 컴퓨터, 반도체, TV 등 | 주요 제품 | | 스마트폰, 컴퓨터, MP3 |
| 48조원 | 2분기 실적 | 매출액 | 57조 1800억원 |
| 6조 9천억원 | | 영업이익 | 12조 3천억원 |
| 비공개(최대 8천만대 추정) | 2분기 스마트폰 판매량 | | 4750만대 |

## '이재용폰' 첫 결산 2분기 삼성, 반도체로 체면치레
## 애플, 작년 낸 아이폰6 승승장구… 이익 삼성 두배

글로벌 정보기술(IT) 시장에서 애플의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있다. 팀 쿡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애플은 그리스위기와 중국경기경착륙 우려 등 대외 악재에도 견조한 수익을 이어가고 있다. 아이폰을 중심으로 애플 워치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고 있다.

애플의 '대항마'로 꼽혔던 삼성전자는 위상이 한풀 꺾인 모습이다. 특히 전략 스마트폰의 부진이 거듭되면서 애플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한때 '캐시카우'로 각광을 받았던 스마트폰 사업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출시초기 '이재용 폰'으로 불렸던 갤럭시 S6·S6 엣지는 반년이나 먼저 출시된 아이폰 6·6 플러스에 완패했다는 분석이 줄을 잇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는 이건희 회장이 구축한 반도체사업 이외에 나머지 사업에서 대부분 부진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재계 일부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능력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IT 업계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을 지휘하는 이 부회장과 쿡 CEO와의 비교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애플은 22일(한국시간) 올해 2분기(애플의 3분기 회계년도·현지시간 6월27일 종료)에 매출 496억 달러(약 57조1800억원), 영업이익 107억 달러(약 12조3000억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쿡 CEO는 "아이폰 매출이 전년 대비 59% 성장했고, 맥 컴퓨터의 안정적인 판매와 애플 페이 등 서비스 부문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애플 워치도 훌륭하게 출발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애플은 올해 2분기에만 아이폰 4750만대를 팔았다. 아이폰이 애플 매출에서 차지한 비중은 63%였다.

애플이 하이엔드 스마트폰 시장에서 돈을 쓸어 담는 사이 삼성전자는 맥을 추지 못했다. 이 부회장 체제에서 탄생한 첫 번째 전략형 스마트폰으로 평가 받는 갤럭시 S6·S6엣지는 아이폰의 상승세를 꺾지 못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제품 판매도 기대를 밑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출시 초기만 해도 7000만대까지 예상됐던 갤럭시 S6·S6엣지의 판매 예상치는 점점 줄어 최근에는 4500만대까지 내려앉았다. 앞서 지난 7일 삼성전자는 잠정실적을 통해 삼성전자의 휴대폰 사업을 담당하는 IM(IT모바일) 부문의 2분기 매출과 역업이익은 각각 약 26조7000억원, 약 2조9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전기 2조7400억원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로는 32% 정도 줄어든 수준이다. 추정치로 계산한 삼성전자의 IM부문 영업이익률은 10.9%, 전사부문 순이익률은 11.7% 수준이다. 애플의 이익률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애플의 스마트폰 판매대수 격차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영업이익 측면에서 삼성전자를 압도하고 있는 것은 삼성이 프리미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수익성이 낮은 중저가 판매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전체 영업이익이 개선세를 그리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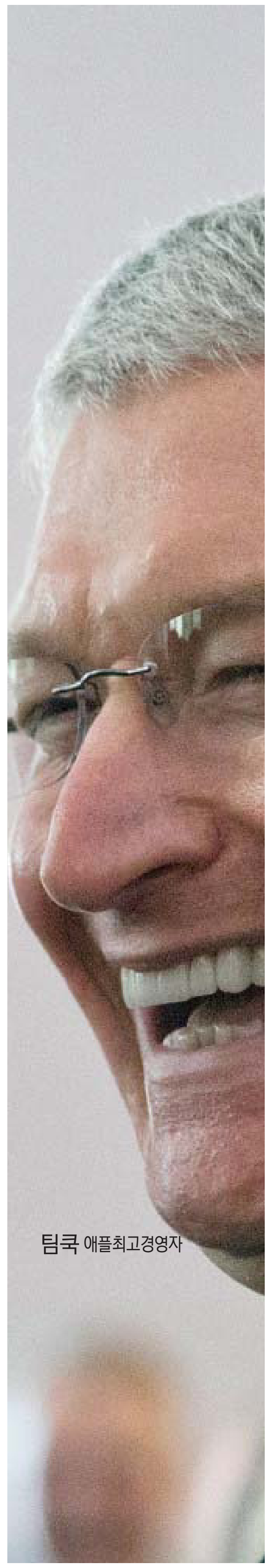
시장조사기관 D램익스체인지 트렌드포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삼성전자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출하량 기준) 26.8%로 선두를 지켰다. 애플은 16.4%였다. 그러나 삼성은 많이 팔고 적게 남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에 갤럭시 시리즈 파생 모델을 잇달아 쏟아내면서 '프리미엄' 이미지가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양사의 영업이익 격차는 2013년 3분기 이후 꾸준히 벌어지고 있다. 이윤이 많은 하이엔드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열세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중·저가 제품까지 '투 트랙' 전략을 쓰고 있지만 화웨이, 샤오미 등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도 힘겨운 상황이다.

양사 신제품의 본격 승부는 4분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으로 떠오른 중국에서의 승부가 관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과 쿡 CEO 모두 중국에 많은 정성을 쏟고 있다. 13억 중국 인구의 시장을 잡지 못하면 승산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신제품 성적표에 따라 이 부회장과 쿡 CEO의 명암이 다시 한 번 갈릴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3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처음 1위를 내준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에 애플, 샤오미, 화웨이에 이어 4위까지 밀렸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시장의 특성상 기존의 대리점 유통망은 이미 시대에 뒤처지고 있다. 이 부회장은 오너경영인의 장점인 신속한 의사결정, 스피드 경영, 전략적 안목으로 중국시장을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한진 기자 hjc@metroseoul.co.kr



팀쿡 애플최고경영자

## 한줄 News

▲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와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교육을 주제로 연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정책세미나에서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연간 사(私)교육 시장 규모**가 올해 국가예산(375조4천억원)의 8.8% 수준인 33조원에 육박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이완구**(65) 전 총리 측이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첫 재판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 대구 남부경찰서는 프로골퍼 **배상문**(29)이 22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경찰이 병역법 위반여부 수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금융정책 당국은 22일 담보 위주로 진행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소득에 기반을 둔 상환능력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화력발전소 4기 건설 계획을 취소하고 2029년까지 **원자력발전소 2기**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원안대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 정부는 22일 광복 70주년 **8·15 남북공동행사** 개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민간단체의 사전접촉을 승인했다.

▲ 숨겨진 대규모 부실이 드러나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실사를 받는 **대우조선해양**이 23일 만기 도래하는 2천억원의 회사채를 자체 현금으로 상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 올시즌 타격 부진에 시달리던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가 22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쿠어스필드에서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와 방문 경기에서 7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단타, 2루타, 3루타, 홈런을 모두 쳐내 아시아 출신 선수로는 처음으로 메이저리그(MLB)에서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했다.

▲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30대 그룹 268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1분기 말 **사내유보금**은 710조3002억원으로 1년 전보다 38조2378억원(5.7%) 증가했고, 삼성과 현대차 그룹의 증가액이 30대 그룹 전체 증가액의 80% 정도를 차지했다.

▲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간 합병 예비인가를 승인했다.

▲ 현대중공업그룹의 금융 계열사인 **하이투자증권**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현대기업금융이 보유한 현대선물 지분 65.2%를 취득하기로 의결했다.

▲ 한국무역협회는 수출 부진을 타개하고 5년 연속 **무역 1조달러 달성**을 위해 지난달 발표된 정3개 부문 11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등 무역업계를 총력 지원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제46주년 기념식 축사를 통해 "2016년 20대 총선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여성을 30% 이상 의무적으로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행**(72) 대한체육회장은 2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15 제2차 대한체육회 임시대의원총회를 마친 뒤 검찰의 대한체육회 관련 비리 수사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으며 떳떳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살현장 마티즈(왼쪽 위)와 CCTV 속 마티즈(왼쪽 아래)의 번호판 색깔과 모양이 확연히 다르고 글씨 색깔도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앞 범퍼 보호가드 역시 자살현장 차량에만 있다고 했다. 차량 안테나도 CCTV 속 마티즈(오른쪽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병헌의원실 제공

# CCTV에 엉뚱한 마티즈가?

### 국정원 직원 자살 차량 진위 논란

경찰 CCTV 영상에 담긴 마티즈 차량이 자살한 국가정보원 직원 임모씨의 차량이냐는 논란이 뜨겁다. CCTV 영상은 임씨가 집에서 자살장소로 이동한 동선을 나타내는 증거다. 진위 여부에 따라 새로운 의혹이 추가될 수 있다.

22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경찰 CCTV 영상 속 마티즈 차량은 자살현장에서 언론에 찍힌 마티즈 차량 사진과 세가지 점에서 다르다.

우선 번호판이 문제다. 전 의원은 "누가 보더라도 자살현장의 마티즈 차량은 가로가 좁고 세로가 긴 구형 녹색 번호판이며, CCTV 속 마티즈는 가로가 길고 세로가 좁은 신형 흰색 번호판"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에서 녹색 번호판의 흰색 글씨가 빛 반사로 확대된 결과라고 해명했지만 "빛의 반사가 빛의 원색인 초록을 흰색으로 바꿀 수는 없다. 번호판의 글씨 색깔 역시 자살현장 마티즈 번호판은 흰색, CCTV 속 마티즈 번호판 글씨는 검은색으로 확연히 다르다"고 했다.

범퍼와 차량 안테나도 문제다. 전 의원은 "자살현장 차량에는 앞 범퍼 보호가드가 있으며, CCTV 속 마티즈 차량에는 보호가드가 없다"고 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자살현장 마티즈에는 차량 안테나가 발견되는 반면, CCTV 속 마티즈에는 차량 안테나가 달려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두 대의 차량은 다른 차량으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번호판 논란이 먼저 일자 "조작 의혹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며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CCTV영상을 지방청 과학수사계로 보내 정밀 감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임씨의 자살)사건 당일인 18일 오전 4시 50분쯤 임씨 자택인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 영상과 오전 6시 20분쯤 자살장소에서 1킬로미터 떨어진 도로에서 찍힌 영상을 비교해도 빨간색 마티즈 차량의 차 창문에 선바이저, 뒷유리에 후사경이 설치돼 같은 차량임이 확인된다"고 했다.

지난 20일 경찰 발표에 따르면 임씨는 18일 오전 4시 50분쯤 출근한다며 마티즈 차량을 타고 경기 용인 시내에 있는 자택을 나섰다. 경찰이 제시한 CCTV 영상은 임씨가 숨진 채 발견된 장소에서 1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을 촬영한 것이다. 자살현장은 임씨의 자택에서 12킬로미터 가량 떨어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화산리 야산의 중턱 부근이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 일본 원정 소매치기단 '또 망신살' 우려

### 10여년전 日 뒤흔든 무장소매치기 단원으로 확인
### 3월 밀입국해 범죄 이어가다 체포… 경찰 '경계령'

10여년전 일본을 경악하게 한 한국인 무장소매치기단 일부가 일본에 밀입국해 절도 행각을 벌이다 체포됐다. 일본 경찰은 10여년전 악몽을 떠올리며 경계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사카 경찰은 지난달 체포한 한국인 남성 2명에게서 '일본 서부에서 수십 건의 절도 등에 관여했다'는 진술이 나오자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두 사람은 10여년전 한국인 무장소매치기단의 일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사카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체포된 두 사람은 김모(49)씨와 이모(54)씨로 10여년전 사건으로 일본에서 형을 마친 뒤 한국으로 귀국, 올해 3월에 일본에 밀입국했다. 이들은 규슈에서 간사이 지방으로 이동하면서 최소 6개 지역에서 수십 건의 절도 사건 등에 관여했다고 진술했다. 4월 오사카 가와치나가노시 우체국에서 발생한 강도치사 사건도 이들의 소행이었다. 당시 이들은 타인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다 우체국 직원에게 스프레이를 분사한 후 도주했다. 이들은 5월 오사카 니시구 쇼핑몰에서 쇼핑카트에 걸어둔 여성의 가방을 훔치기도 했다.

오사카 경찰은 이들 외에도 일당이 있을 것으로 보고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예전만큼 흉악성을 띠고 있지는 않지만 밀입국을 막기 위해 입국대책을 포함해 각 현 경찰·관계기관과 공조해 경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인 무장소매치기단은 2004년 일본 도쿄 지하철 역에서 칼부림 사건을 벌여 악명을 떨쳤다. 할머니의 돈지갑을 훔치다 달아나던 이들은 칼과 최루가스를 분사해 역원과 경찰에게 부상을 입히고 결국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제압당했다.

2006년에도 도쿄 지하철 역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 최루가스를 분사하고 도주한 한국인 무장소매치기단 사건이 일본을 뒤흔들었다. 당시 경찰관 2명이 중상을 입었고 시민 27명이 병원치료를 받았다.

일본 언론들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한국인 범죄를 집중 조명하며 이슈화했다.

/송병형 기자

# 엘리엇 후폭풍 ‘차등의결권’ 도입 논란

## 회사 정관으로 차등의결권주 따로 마련 무능력한 재벌 총수 계속적 기업지배 보장




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최근 헤지펀드 엘리엇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사안에 대한 공격과 관련,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엘리엇 사태로 포이즌필·차등의결권 제도를 추진한다는 보도를 부인한 지 하루 만에 여당 내에서 같은 이야기가 나왔다. 그것도 국회부의장이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개발언 형식으로 추진 의사를 밝혔다. 무능력한 재벌 총수가 소수의 지분만으로 계속 기업을 장악하게 보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을 계기로 우리 기업이 투기성 외국자본에 취약하다는 점이 노출됐다.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 등 경제선진국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은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한 상태지만 우리나라는 지배주주의 사익추구에 악용될 수 있다는 여론에 밀려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포이즌필은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을 경우 기존 주주에게 저가로 주식을 발행·인수하는 권리를 주는 제도다. 또 차등의결권은 기업 지배주주에게 보통주보다 높은 수준의 의결권을 주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다. 한국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제도다. 재벌이라는 특수한 재계 현실로 인해 비판 여론이 강하기 때문이다.

정 부의장실 관계자는 "2009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다 무산됐고, 2010년 법안이 발의된 적도 있지만 결국 폐기됐다"면서도 "삼성 합병 건이 터져서 (다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한국상장협회와 제도 도입과 관련해 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어 그때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 법제실에 검토를 의뢰해 내일 검토 최종안이 나올 예정이다. 내일 법안이 오면 이번 달 안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날 정부에서 이 제도들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접촉한 적 없다"고 했다.

메트로신문 취재 결과 정 부의장 법안에는 기존 제도와는 다른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차등의결권의 경우 정 부의장은 주식발행 단계에서 차등의결권주를 따로 마련한다. 정관을 통해서다. 기존 주식에 의결권을 다르게 부여하는 일반적인 방식과는 다르다.

한 전문가는 이 같은 방식의 차등의결권주와 포이즌필 제도를 함께 도입할 경우 모든 회사가 정관에서 정하기만 하면 무능력한 재벌 총수의 기업장악을 보장해준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회사의 정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창업주에만 차등의결권을 주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종합주가지수가 폭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의결권이 1주에 불과한 주식의 주가는 폭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 부의장은 1970년부터 30여년 간 울산에서 목재 관련 중소기업을 설립해 운영해온 오너 기업인 출신이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경제주체는 기업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기에 이번 상법 개정안을 준비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정부 차원에서도 경영권 방어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돌지만 현재 정부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윤정원 기자 garden@metroseoul.co.kr

## 北 ‘더 멀리가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



2012년 12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되고 있는 북한 장거리 로켓 은하3호.. /연합뉴스

### 2012년 은하3호보다 장거리 노동당 창건일 발사 전망

북한이 2012년 은하3호의 사거리를 능가하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 세워진 기존 50m 높이의 발사대를 최근 17m 더 높여 67m로 증축하는 공사를 거의 마무리했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증축된 동창리 발사대를 이용해 은하3호보다 길이가 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전후로 도발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정부 소식통은 "평양 인근의 병기 공장에서 장거리 로켓 제작으로 보이는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2012년 발사에 성공한 은하3호는 사거리가 1만킬로미터 정도로 평가된다. 미국을 타격하기에는 부족한 거리다.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준의 사거리를 확보할 경우 북미간 미사일 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송병형 기자 bhsong@

## 새정치 또 막말 논란… 욕설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또 반말에 욕설까지 난무하는 볼썽사나운 풍경을 연출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반말과 'XX'이라는 욕설, 고성이 난무했다.

발단은 정봉주 전 의원 사면을 요구하는 유승희 최고위원의 발언이었다. 유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에서 "저는 부정부패 경제인, 부정부패 정치인의 사면을 반대한 것"이라며 "정의를 위해 정치적 보복을 당하는 정 전 의원이 사면 1호가 돼야 한다"는 견해를 거듭 반복했다. 앞서 유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최고위원회의 때 공개적으로 정 전 의원의 사면을 촉구, 정치인 사면을 언급하지 말자는 지도부 간 공감대를 깼다는 눈총을 받은 바 있다.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이용득 최고위원은 "당이 왜 모양이냐. 왜 걸핏하면 당을 물어뜯고 그러냐"며 유 최고위원을 향해 "똑바로 해"라고 고함을 질렀다. 이에 유 최고위원이 "왜 반말하세요"라고 항의하자 이 최고위원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반말을 못 하냐. 왜 당을 갖고 물고 늘어지느냐"며 "당이 싫으면 떠나면 되지 왜 당을 상처 내고 그러는 거야"라고 응수했다. 이 과정에서 이 최고위원은 'XX'이라는 욕설까지 섞었다. /윤정원 기자

## 창조경제혁신센터, 17곳 설립 마무리

인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22일 문을 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들여 온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이 마무리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대구 센터를 시작으로 거의 일년 가까이 센터가 문을 열 때마다 개소식에 참석하는 대장정을 걸어왔다. 센터가 예상대로의 성과를 내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인천 센터를 포함해 17개 센터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각각 고유한 특성과 장점을 갖춘 전국 혁신센터들이 본격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면서 창조경제 성공사례를 확산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창조경제혁신센터 기획과 구축 과정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주요 대기업과 창조혁신센터를 연계해 1대1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은 삼성, 대전·세종은 SK, 부산은 롯데, 경남은 두산, 인천은 한진, 경기는 KT, 광주는 현대자동차, 전북은 효성, 전남은 GS, 충북은 LG, 충남은 한화, 강원은 네이버, 서울은 CJ, 울산은 현대중공업, 제주는 다음 등이 지원을 맡았다. /송병형 기자



**막장으로 가는 미 공화당 대선 경선**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21일(현지시간) 경선 유세에서 경쟁 후보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전화번호가 적힌 종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4년 전 그레이엄 의원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자금을 요청했다며 종이를 꺼내더니 전화를 걸어보라고 번호를 두 차례나 크게 읽었다. /연합뉴스

# 이완구 첫 재판, 檢 "확실한 물증 있다"

### 변호인 "돈 받은 혐의 부인… 증거 목록 자료 봐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사진) 전 국무총리가 변호인을 통해 "돈을 받은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유죄 입증 '패'를 숨겨온 검찰은 "진술 증거보다 확실한 물적 증거를 찾아냈다"면서 유죄를 확언했다. 이 전 총리는 준비기일인 만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이 전 총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사건 검토를 마쳤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검찰 측이 (명확한) 범죄 사실에 대해 얘기한 후에 하겠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출한 증거 목록의 자료를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 측은 특히 "검찰 측의 증거들이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일체인지 의심된다. 제출한 것 외에 다른 증거들이 있으면 변호인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자 검찰 측은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한 증거서류는 확정됐다. 절차에 따라 공소사실을 열람하면 된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증거목록으로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와 목숨을 끊기 직전 육성 인터뷰, 성 전 회장의 부여 선거 사무소 방문사실, 기타 정황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날 검찰은 "진술보다 확실한 물적 증거를 찾았다"면서도 국민적 관심이 크고, 금품 공여자가 없는 상황에서 사건 관련 참고인들의 기억이 희미해 질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준비기일을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유죄입증 패를 숨기고, 변호인 측이 불분명한 공소사실로 답변을 주저하자 재판부는 "준비기일 단계에서 신청된 증거 외에는 따로 채택하지 않겠다"며 공소 사실과 증거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내달 21일까지 증거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서면 제출을 요청하고, 검찰에겐 이를 근거로 증인 신청과 서증조사 등 계획을 작성해 같은 달 27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다음 기일은 내달 3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 재보궐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성 전 회장은 작은 상자에 현금 3000만원을 담고 이를 다시 쇼핑백에 넣어 이 전 총리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검찰은 지난 2일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 8명 중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 전 총리를 불구속으로 기소하고 남은 6명은 불기소했다. 홍 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 '해킹의혹' 전현직 국정원장 고발 계획

### 참여연대·민변 "적극적으로 추진중"

시민사회단체들이 전·현직 국가정보원장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22일 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 등과 함께 원세훈,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병호 현 국정원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원이 이탈리아 정보기술(IT)업체 '해킹팀'으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정원과 해킹팀을 중개한 것으로 알려진 나나테크의 허모 대표와 개인 블로그를 통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직원 또는 협력자 추정 김모씨도 고발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고발장 초안을 완성해 검토하는 단계다. 이들은 고발인을 단체명의로 할지 국민참여를 받아 국민고발 형태로 할지도 논의하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해당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 병행도 필요하다"며 "(고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홍원기자 hong@

## 아동에게 은밀한 신체사진 요구 "학대"

### 대법, 무죄 원심깨고 유죄 판결

아동에게 신체 은밀한 부위를 사진으로 찍어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2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일병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일병은 2012년 7월 인터넷 게임으로 알게 된 10살 B양에게 세 차례에 걸쳐 영상 통화로 은밀한 부위를 보여달라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아동에게 물리적·정신적 위해를 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거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고 자신을 보호할 능력도 미약한 상태로, 피고인이 성적 무지와 타인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성향을 이용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요구를 반복했으므로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연미란 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 | |
|---|---|
| 발행·인쇄인 | 남 궁 호 |
| 사장·편집인 | 김 종 학 |
| 편집국장 | 강 세 준 |
| 광고문의 | 02)721-9851,3 |
| 독자센터 | 02)721-9861 |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 "계약서 없어도 관리감독 받으면 근로자"

### 대법원 "실질적 근무형태로 근로자성 판단해야"

계약서 상에는 회사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것처럼 기재돼 있어도 실제로 실적관리와 지휘가 있었다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계약서 문구보다는 실질적인 근로형태가 법적으로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농협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만들어진 채권추심 회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서 일해온 김모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전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 등은 6개월마다 재계약하면서 3~9년간 이 회사에 소속돼 채권추심업무를 했다.

이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받았지만 회사가 제공한 사무실로 출근해 배정받은 업무를 수행했고, 실적과 출퇴근 상황을 점검받았다.

그러던 중 2008년 2월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서 일하는 채권추심원들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사측은 대책 마련에 나섰고, 계약서 상에 근로자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조항을 차츰 삭제해나갔다.

공식적으로는 실적 보고를 받지 않고 직원 교육도 없애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사측은 변경된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직원들을 관리감독했다.

김씨 등은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사측이 계약서를 바꾼 2008년 2월 이후로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사측이 계약서를 바꾸고도 여전히 실적관리 등을 해온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지시감독이 가능한 각종 의무부과 조항 등이 대부분 삭제된 근로계약서를 사용하기 시작한 2008년 6월 이후로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측이 이후로도 종전 계약서를 사용하기도 하는 등 회사 스스로 계약서 양식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고, 2008년 6월 이후에도 출퇴근과 업무실적을 계속 관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선준 기자 rsunjun@

## 박래군 "구속과 상관없이 진상규명 노력해 달라"

### 세월호 추모집회 관련 혐의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돼



"제가 구속되는 것과 상관없이 진상규명 활동에 노력해달라."

지난 16일 구속된 박래군(사진)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진상규명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위원은 22일 오전 8시쯤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중앙지검으로 송치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위축되지 말고 목표했던 바를 추진해나갔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은 "세월호 진상규명이 시작도 안됐는데 정부가 이를 탄압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에 맞춰서 활동을 해나가야 되는데 구속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까"라며 우려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1분 정도 짧게 답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 중앙지검으로 송치된 박 위원은 조만간 서울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박 위원과 4·16연대 김혜진 운영위원이 지난 4~5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세월호 추모집회와 관련, 미신고 집회를 벌이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16일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 위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김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됐다.

한편 4·16연대는 "구속 수사는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과 인권을 탄압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긴급청원을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제출하는 등 국제사회에 박 위원의 석방을 호소하고 있다.

/연미란 기자

# 홍준표 초강력 변호인단

## '내곡동 특검' 출신 이광범 등 8명으로 구성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3일 첫 재판이 시작되는 홍준표(사진) 경남도지사가 강력한 변호인단을 꾸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지사는 이광범 법무법인 엘케이비(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 등을 대표로 하는 변호인 선임계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홍 지사를 대리했던 법무법인 리앤리의 이혁 변호사도 함께 선임됐지만 공판은 이광범 변호사 측이 전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이광범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3기로 홍 지사보다 한 기수 위다.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인사실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 엘리트 법관 코스를 거쳤다. 이상훈 대법관의 친동생으로 형이 대법관 후보에 오르자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에서 물러나 개업했다.

이광범 변호사는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의 특별검사를 맡았다. 그의 지휘를 받은 특검팀은 한 달여 수사 끝에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경호처 직원 3명을 기소했다.

당시 새누리당 대표였던 홍 지사는 청와대가 이광범 변호사 등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들을 거부하며 재추천을 요구하자 청와대를 공개 비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와 함께 LKB앤파트너스에서 변호인 5명이 홍 지사를 변호한다. 기존 이혁 변호사 등 2명을 합쳐 변호인단은 8명으로 구성됐다. 이중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출신 이철의 LKB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이 사건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현용선 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24기)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경남 어민들 조업 중단하고 시위** 경남 어민들이 22일 오후 경남 남해군 미조항 수협 앞에서 항구에 배를 묶어놓은 뒤 '어업권 사수를 위한 경남연근해조업구역대책위원회 출정식'을 하고 있다. 어민들은 최근 대법원이 '해상 조업 경계구역 존재' 판결로 졸지에 전남과 맞붙은 황금어장을 잃게 되자 이날 조업을 중단한 채 대규모 해상 시위를 벌였다. /연합뉴스

# 대학 등록금 외국인만 후한 혜택… 시스템 개선 필요

## 국내 대학생 '불만' 표현

외국인 학생 유치 전면 확대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에게는 후한 등록금과 장학금 혜택을 주고 있지만 정작 국내 대학생들은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대학생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22일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한 대학생이 "대학 등록금때문에 학교 때려치고 죽고 싶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학생은 "이번에 성적을 잘 받아서 4.38점(4.5 만점)에 105명 중 5등을 했지만 최소 장학금인 40만원이 나왔다. 또 동생이 대학 신입이라 등록금에 기숙사비까지 400만원이 넘게 든다"고 하소연했다.

또다른 대학생은 "국립대 합격했지만 우리집은 대학 등록금 내줄만 한 형편 아니다"라며 "학교가 집과 멀어 기숙사도 신청해야 하는데 대학 가서 공부하고 싶은 건 욕심이었나보다"고 털어놨다.

이 같이 국내 대학생들이 등록금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반해 외국인 학생에 대한 국내 대학들의 처우는 상대적으로 후한 편이다.

한양대의 경우 한학기 평균학점 2.0이 넘으면 면접 등을 거쳐 최대 70%까지 학비를 감면해 준다. 2.0의 학점은 C정도의 등급에 해당된다.

성균관대는 전체 외국인 유학생에게 입학금 등을 포함한 전체 학비의 25%를 감해준다. 이후 학기 성적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급한다.

방송통신대는 귀화자 혹은 결혼 이민자들에게 전액 등록금 면제의 혜택을 주고 있다. 고려대는 일부 외국인 장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면제해주고 한달 생활비로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김동애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 본부장은 외국인 등록금 혜택 문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당장은 힘들더라도 독일처럼 등록금 자체를 없애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서이 기자 redsun217@

# 손배소 중 경제적 타격, 해결 방법은

**생활 법률**

최근 큰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A씨. 상대 차량이 잘못해 발생한 사고임에도 그가 치료비 등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참다못한 A씨는 아내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배상 결정이 나기까지 과정이 만만치 않다.

당장 매달 나가는 치료비도 부담이다. A씨의 경우처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경제적 타격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A씨처럼 상대방의 치료비 미지급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생긴 경우 법원에 '금전지급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금전지급 가처분은 소송을 통한 법률관계가 확정되기 전 금전채무의 일부나 전부를 지급받지 못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임시로 금전지급을 명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법원에 치료비를 임시로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다.

법원이 가지급 결정을 내리면 보험회사는 14일 이내 신청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지급을 미루면 집달관과 함께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시비로 인한 소송 장기화가 예상되고,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생활 곤란 등을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인용률도 높은 편이다. A씨처럼 피해 당사자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보호자일 경우나 치료로 수입 전부를 상실할 때는 생계비도 지급 범위에 포함토록 하고 있다.

신청인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제203호에 따라 구체적인 신청 이유를 기재해 법원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진행중인 소송 등 금전채권의 존재와 급박하게 지급돼야 할 필요가 있는 금액의 산출근거,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 소명하면 된다. 미납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에 대한 정기금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이 드러나 치료비를 상계한 후 남은 배상액이 얼마 남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금전지급 가처분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연미란 기자

# '美 대사 습격' 김기종, 국보법 추가 기소

## 북한 동조해 국가존립 위협 변호인 "부당한 공소권 남용"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를 습격(살인미수 등)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기종(55·사진)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김씨의 속행공판에서 공소장에 국보법 위반 혐의를 더하겠다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검찰은 "김씨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북침 전쟁연습으로 중단돼야 한다'는 북한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에 동조해 미국 대사에게 위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주거지 압수수색 결과, 수사기록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의 주장에 호응한 김씨에게 국가존립을 위협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갑자기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는 부당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지난 3월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등을 수차례 찔러 상처를 입히고 현장에서 붙잡혔다.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미수,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등이다.

재판부는 내달 10일 오전 10시 다음 재판을 연 뒤 9월 중순 선고할 예정이다. /이홍원 기자 hong@

# 인천을 '동북아 스마트 물류허브'로

### 한진그룹,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본격 출범

### 1590억원 펀드 조성… 창업·벤처·중기 지원 예정

한진그룹과 인천시가 지원하는 '동북아 물류 허브'가 최첨단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물류 거점으로 거듭난다. 또 국내 스타트업의 중국 진출을 위한 컨설팅과 교류협력을 위한 플랫폼이 인천에 구축된다.

미래창조과학부·인천시·한진그룹은 22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에서 최양희 미래부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조양호 한진그룹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인천창조경제센터의 출범으로 전국 17개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모두 출범하게 됐다. 이는 지난해 9월15일 대구 창조경제센터 확대 출범이후 310일 만이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의 수요와 전담기업의 전략분야에 맞춰 지역특화산업, 창업과 벤처중소기업의 성장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혁신거점기능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지자체와 전담 기업이 힘을 합쳐 혁신센터가 지역에서 성공스토리를 만들어내고 확산시키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총 2293㎡ 규모로 미추홀타워 7층 본원(1316㎡)과 제물포스마트타운 분원(977㎡)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인천의 물류 인프라와 한진의 물류 노하우를 결합, 인천을 스마트 물류 거점으로 조성하는 데 주력하게 된다.

지난 1883년 개항이후 국제교류의 관문역할을 해온 인천의 전통 물류산업에 IT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해 ▲실시간 위치추적 ▲무인항공기 배송 ▲온도·습도 제어 운반 ▲공항 및 항만 시스템 자동화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술 및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인천시·한진그룹의 지원과 창조경제혁신펀드 등으로 총 159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창업·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13개분야 77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인천지역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양해각서(MOU)도 체결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뉴시스

센터는 한진그룹·스파크랩·시스코 등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생 벤처기업의 마케팅,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지원 업무도 수행한다.

아울러 한진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항공엔진 정비기술과 연구기관의 역량을 모아 자동차 소재·부품 기업, 항공엔진 정비 기업의 기술 수준을 높이고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한다.

대한항공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약 6만9000㎡(약 2만평)에 최대 15만 파운드 추력의 엔진 성능시험이 가능한 세계 최대 규모의 엔진 시운전 시설·엔진정비센터를 연내 완공한다. 또한 대한항공은 지역 내 산학협력기관(인하학원)들과 공동 사업을 통해 항공기 엔진 관련 고급기술과 글로벌 관리 품질을 중소기업과 함께 축적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소·벤처 수출 물류 기업의 경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사업도 다각적으로 추진한다. 민관 합동 종합물류컨설팅센터를 운영, 물류 노하우가 부족한 중소벤처·소상공인에 수출 물류 컨설팅을 제공한다. 대한항공의 항온운송기술을 활용해 신선 농수산식품의 수출을 지원하고 해외 농수산물 시장동향 분석, 국내외 바이어 연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인천이 대 중국 수출의 전진기지인 점에 주목, 신생 벤처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 직판 온라인 보부상 '인상(仁商)' 프로젝트도 진행된다.

중국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몰 이론·실습 교육, 해외 오픈마켓 입점 지원, e-커머스 창업 교육을 실시하며 온라인 보부상을 집중 육성한다.

또한 베이징 칭화대의 칭화과학기술원, 섬유과학·공학 명문 동화대, 웨이하이시 등 중국 현지 협력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투자설명회, 단기연수, 수출상담회 등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 헤라 짝퉁 쿠션 '골머리'

### 아모레퍼시픽

### 브랜드이미지 실추 우려 오픈마켓·소셜커머스 주의



아모레퍼시픽이 짝퉁 쿠션 제품으로 속앓이 중이다. 위조품 유통으로 소비자 피해뿐만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 실추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자사 브랜드 헤라의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쿠션 위조품 유통 관련 사과문과 함께 공식입장을 게재했다.

회사 측은 해당 게시물을 통해 "회사 쿠션 제품의 위상과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위조품의 생산·유통을 통해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사례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안은 수사 기관에서 철저히 조사 중에 있으며 피해자 발생을 막고자 대응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위조된 제품은 헤라 'UV 미스트 쿠션'이다. 현재 검찰이 어디서 만들어져 얼마나 많은 제품이 유통된 것인지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 퍼프를 이용해 피운데이션을 찍어바르는 형태인 쿠션 화장품은 아모레퍼시픽이 주차 도장에서 착안해 개발한 것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08년 아이오페 에어쿠션을 출시한 이후 자사 13개 브랜드를 통해 쿠션 화장품을 내놓고 있다.

위조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지만 회사 측이 내놓을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얼마나 많은 물량이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지 일일이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제품명을 달고 나오지만 위조품마다 특징이 제각각이어서 정품 가이드라인 배포는 엄두도 못내고 있다.

회사 측은 정식 유통 경로를 통해 구매할 것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정식 판매 채널은 방판·백화점·자사 온라인 직영몰과 백화점 자체 온라인몰·면세점 매장(사후면세점 제외)이다. 소셜커머스나 오픈마켓·홈쇼핑은 정식 판매처에 포함돼 있지 않다.

/김수정 기자 ksj0215@

## "외국인 방문 감소, GDP성장률 0.1%p↓ 전망"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 메르스·가뭄으로 실적 낮아 해외 관광객 유치 노력 절실 "국내서 휴가 보내길" 당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연간 GDP 성장률이 0.1%p 하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한국은행에서 경제동향간담회를 열고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 와서 소비하는 것이 서비스 수출로 잡히는데,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남짓"이라고 말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여파로 인한 외국인 관광객 축소와 이에 따른 GDP 감소 영향이 연간 GDP를 0.1%p 낮출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6월달만 해도 외국인 관광객이 50% 정도, 정확히는 53% 줄었다"며 "7,8월이 관광 성수기인데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또 "최근 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하며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낮췄다"면서 "추경 효과를 반영해도 0.3%p 낮아진 수치"라고 평가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메르스 사태하고 가뭄의 영향으로 2/4분기 실적치가 크게 낮아진 데 주로 기인한다"며 "내수를 살리려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노력이 정말 필요하고 그에 못지않게 우리 국민들도 가급적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 관련 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강두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문영배 NICE신용평가정보 CB연구소장,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이인형 자본시장연구원 부원장 등 주요 기관 및 학계 인사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문제의 경우 총량 관리도 중요하지만 미시적 분석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특히 자영업자와 다중채무자 등 가계부채 취약부문에 대한 미시적 분석과 더불어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조화롭게 운용돼야 하며,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낮추기 위해 거시경제정책을 중장기적 시계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


국내최초 윈덤본사와 기술 자문 및 책임 TSA 약정체결!
별장
호텔
수익
"2천만원"만 있으면!
수익안심보장제도
✓ 계약즉시 수익지급!!
✓ 5년 후 원분양가+α 환매조건 분양
수익률 연23%
5년후 원금보장 +α까지 되는 호텔
객실당 실투자 2천만원대
▶ 강원 라마다호텔&리조트에 역대 올림픽 스타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테디베어 올림픽 파크 전시관이 오는 10월 문을 엽니다.
컨벤션동 1, 2, 3층 테디베어 갤러리
테디베어 올림픽 파크
O2 산소도시 태백
축
강원라마다호텔&리조트에
'테디베어 올림픽테마파크' 개관 예정
RAMADA
Hotel&Resort
업무제휴사
고정고객 확보
분양가
9천만원
실투자
2천만원대
3년 수익금
약 2,400만원
즉시 지급
5년후 원분양가 환매보장
잔금납입 즉시 이전등기
계약즉시 수익발생
국내 체인 라마다호텔
연10일 무료이용
테디베어 MOU
여행사 MOU
태백 레이싱파크 MOU
분양문의 02)549-
RAMADA
올림픽파크 전시관
청약방법
청약금 : 100만원 [외환은행 630-009601-061]
예금주 : (주) 생보부동산신탁 ※미 계약시 청약금은 전액 환불됩니다.
| 운영사 (주)산하HM
| 자금관리 SAENGBO 생보부동산신탁
※생보부동산신탁은 상기 '수익금 지급 및 관리' 와 무관합니다.
| 인테리어 설계 및 시공 (주)도모건축
| 시행사 (주)월드스포츠
■대지위치 : 강원도 태백시 소도동 24-10 외 ■대지면적 : 7,186㎡(컨벤션 및 기타부지 제외) ■건축규모 : 15,133.58㎡ (지상면적 14,186.06㎡ / 지하면적 947.52㎡) ■시설규모 : 객실 305실, 10개동(동당 30~31실)
■객실타입 : Standard 177실, Deluxe 90실, Suite 28실, 단체실 10실(총 305실)
분양문의
02)756-2000

# ‘삼성 백기사’ KCC, 수천억대 평가 손실

| 마켓인사이트 |

## 삼성물산·제일모직 주가 급락에 KCC 주가도 휘청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기대에 크게 올랐던 KCC 주가가 합병 프리미엄이 빠지며 다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KCC는 삼성물산 지분 6%와 제일모직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가도 합병안 발표일인 5월 26일 수준까지 되돌아가는 등 이슈 효과를 반납한 상태여서 KCC 주가흐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KCC는 전일 대비 3.69%(2만원) 내린 52만2000원으로 장을 마쳤다. KCC 주가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 13일부터 합병이 통과되기 하루 전까지 나흘 동안 17.19% 상승했다. 이후 합병이 통과된 17일부터 현재까지 5.43% 하락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결정 후 21일까지 각각 14.6%, 11.6% 하락했다. 그 사이 KCC가 입은 손실은 수천억원대에 이른다.

KCC는 현재 삼성물산 지분 899만주(6.76%)와 제일모직 지분 1375만주(10.19%)를 보유하고 있다. KCC는 지난달 10일 종가 7만5000원에 삼성물산 자사주 5.76%를 사들이며 삼성물산의 백기사를 자처했다. 매입가격은 6743억원으로 KCC의 지난해 영업이익 보다도 두 배가 많다.

삼성물산 주가가 6만원까지 떨어지면서 KCC가 입은 평가손실은 1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삼성물산 주가가 합병 발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경우 손실은 1800억원에 달하고, ISS(국제의결권자문사)가 합병 무산시 삼성물산 주가가 22%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데 따르면 손실은 2260억원까지 늘어난다.

또 제일모직 주가가 합병 발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경우 평가손실은 2612억원을 헤아리게 된다. 이들 양사 주가 향방에 따라 KCC 희비가 갈리게 된다.

현 시점에서 투자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주장도 있다.

최지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KCC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외에도 현대차, 현대중공업 등 여러 주식에 장기 투자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보유자산 가치에 대해 재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삼성그룹과의 영업상 시너지 효과 등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하고 현재 시점에서 투자의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이르다”고 설명했다.

다만 엘리엇이 ‘KCC 자사주 의결권 행사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잇달아 기각당한 이후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황은 KCC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엘리엇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방해하고 나선다면 순조로운 합병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지분 상당수를 보유한 KCC로서는 합병 불발은 생각하기도 싫은 시나리오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지분을 보유 중인 KCC 주가가 합병 통과 이후 삼성그룹 지배구조 이슈 프리미엄을 반납하며 연일 하락하고 있다. /연합뉴스

증권 마감시황

## 코스피, 2060선까지 하락

### 실적 우려·外人 매도 탓 코스닥, 이틀째 약세

코스피가 2분기 실적 우려와 외국인 매도세에 2060선까지 후퇴했다.

22일 코스피지수는 전일대비 18.89포인트(0.91%) 내린 2064.73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장중 한때 실적 우려가 번지며 2059.45까지 내리기도 했다.

이날 외국인은 3777억원 어치를 내다팔았다. 기관도 277억원 순매도였다. 반면 개인만이 4228억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업, 비금속광물, 증권, 화학 등이 2% 넘게 하락했다. 반면 섬유의복과 의료정밀은 상승했다.

시가총액 상위종목 가운데선 제일모직과 현대모비스 등을 제외하고 일제히 하락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하루 만에 하락했고, 삼성전자 한국전력 SK하이닉스 등도 내림세를 기록했다. 아모레퍼시픽과 NAVER는 2% 넘게 떨어졌다.

특히 LG전자는 구글이 지분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장중 한때 14%대까지 올라섰다.

LG전자 측은 “구글과 인수 관련 의견을 교환한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3.07% 상승 마감했다.

합병 성공 이후 약세를 나타냈던 삼성물산(1.52%)과 제일모직(2.62%)은 이날 나란히 반등했다.

코스닥지수는 이틀째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일대비 0.69% 떨어진 776.57로 장을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31억원과 190억원 순매도였다. 개인만 683억원 매수 우위였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은 혼조세를 보였다.

대장주인 셀트리온과 다음카카오는 각각 0.99%, 0.53% 올라 하루 만에 반등했지만 메디톡스는 3.72% 하락했다.

/김민지기자 minji@




코스피가 22일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2060선으로 후퇴했다. 이날 코스피는 18.89포인트(0.91%) 내린 2064.73으로 장을 마쳤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투자, 알려드려요” KDB대우증권은 중국시장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중국 투자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카데미는 오는 30일 오후 6시 본사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된다. /KDB대우증권 제공

## “증권사 2분기 장사 잘했다”… 증권주 다시 부상

### 2분기 순이익 사상 최대치

주요 증권사들이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호실적 행진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에 증권주도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국내 증권사들이 올 2분기에 사상 최대 순이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태경 현대증권 연구원은 “올 2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넘어 순이익의 경우 1년 전에 비해 221% 증가할 것”이라며 “2분기 일평균 거래대금이 지난 1분기 대비 38%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KDB대우증권은 지난 15일 공시를 통해 2분기 실적을 공개했다.

대우증권의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139% 증가한 1536억30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매출은 1조3286억원을, 당기순익은 1183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는 주식위탁매매(브로커리지)와 자산관리(WM), 투자은행(IB), 세일즈앤트레이딩(S&T)등 모든 분야에서 고른 실적을 달성한 결과다.

박혜진 교보증권 연구원은 “시장의 우려에도 상품운용 이익 하락폭은 크지 않았다”면서 “리테일(소매금융) 강화 전략이 거래대금 증가와 맞물리면서 분기 이익 최대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9일 실적을 공개한 HMC투자증권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올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55.1% 늘어난 234억72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446억240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 증가했다.

다른 증권사들도 호실적이 예상되고 있다.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은 지난해 2분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현대증권은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111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삼성증권의 경우 브로커리지 수익 덕분에 2분기 추정 순이익이 1065억원으로 1분기 830억원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특히 2분기 후강퉁 관련 거래 활성화로 해외브로커리지 수익이 전분기 대비 두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지 기자

# "처음부터 빚 나눠 갚는 구조로 만든다"

**금융위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 발표**

## 가계빚 1100조 육박… 분할상환 목표 45%로↑
## 대출심사 땐 담보 위주 아닌 상환능력 위주로

정부가 가계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담보 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바뀌며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 비주택대출 증가에 대해선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 가계부채, 1100조 시대…"빚 나눠 갚는 구조 정착"**

22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저금리와 주택거래 호조 등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가계부채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늘어난 1099조원에 달한다.

이에 정부는 '빚을 처음부터 나눠 갚아나가는' 구조를 정착하기로 했다. 또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이 되도록 금융회사 심사 방식을 선진화한다.

금융위는 분할상환 최종목표를 각각 45%로 상향하고 연도별 목표를 조정할 계획이다. 또 오는 12월부터 구조개선 실적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우대키로 했다.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에는 최저요율 0.05%를 적용하며,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 최대 연 0.06%p 감면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회사 스스로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필요한 장기·고정금리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커버드본드 발행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특히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 관행을 정착하기 위해 내년부터 은행권 내부 시스템에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원칙을 도입키로 했다.

대출자가 분할상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게 '분할상환 캠페인'을 추진하고 10월부터 앱(안심주머니·住Money)을 보급할 계획이다.

**◆ 차주 채무상환능력 심사…제2금융권 관리 강화**

기존의 담보위주였던 상환능력 심사 방식은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바뀐다.

또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시 소득수준과 주택가격 대비 대출금액이 크면 일정수준 초과분을 분할상환 방식으로 할 예정이다.

단 기존대출을 분할상환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LTV·DTI 비율 등을 그대로 인정해 분할상환 기회를 제공한다.

변동금리 주담대는 취급시점의 금리에 일정 수준의 금리(Stress rate)를 반영해 대출가능 한도를 계산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하반기부터는 주담대 상환능력 심사 시 기타 부채의 원금 상환액까지 고려해 차주의 총체적인 상환부담을 심사할 방침이다.

한편 제2금융권 비주택대출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상호 금융권의 부동산담보대출 관리는 강화키로 했다.

현재 비과세로 적용중인 예탁금도 내년 5%, 2017년 9% 과세 등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제2금융권 신용대출에 대해선 급격히 증가할 경우 대출한도 도입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은행권 자본 확충, 유한책임대출 시범 도입 등을 통해 충격 발생시 대응력을 제고하는 한편 관계기관 합동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분할상환 등 구조개선과 관행 정착, 선진형 상환능력심사 체계 구축 등 시스템적·단계적 접근 방식"이라며 "인위적인 대출 억제보다는 사전 위험 관리와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 차관보는 "관리방안은 세부방안별 필요 조치와 금융회사 전산 개발 등 내부시스템 구축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가계부채 상시점검반 운영, 구조개선 목표 강화, 상호금융권 관리 강화 방안 등 연내 추진 가능한 대책은 최대한 신속하게 실시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청소년진로직업현장체험**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이 서울 광화문 소재 신한 청소년 금융교육센터를 방문해 실제 영업점과 동일한 환경에서 은행원 업무를 체험하고 있다. /신한은행 제공

## '저유가'에 수출입 교역조건 10개월째 호조세

저유가가 지속됨에 따라 수출입 상품의 교역조건도 호조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에 따르면 지난달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100.07(2010년 100 기준)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상품 하나를 수출하고 받은 돈으로 다른 나라의 물건을 얼마만큼 살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즉 상품 한 단위의 수출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일컫는다.

이는 작년 9월 0.6% 오른 이후 열 달째 순항 중이며 전월 대비로는 0.7% 떨어져 지난 3월 이후 3개월 만에 전월대비 하락세로 전환했다.

우리나라는 석유 소비량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유가가 교역조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전체 수출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을 보여주는 소득교역조건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21.3% 오른 136.73으로 조사됐다.

같은기간 수출물량지수는 8.4% 상승했고 수입물량지수는 6.0% 늘었다. 이밖에 수입금액지수는 광산품과 석탄, 석유제품의 감소로 14.5% 하락했다.

/백아란 기자

## 신한카드-GS리테일, 핀테크 관련 MOU

### '모바일 결제 플렛폼' 구축

신한카드가 GS리테일과 손잡고 앱카드 기반 모바일 결제 플랫폼을 만든다.

22일 신한카드는 서울 중구 명동 본사에서 GS리테일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핀테크·제휴 마케팅 공동협력 확대' 관련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앱카드와 O2O(Online to Offline), 모바일카드 등 핀테크 분야를 비롯해 빅데이터, 제휴카드 공동마케팅 등 사업 전반에서 전략적 제휴를 추진키로 했다.

단순 앱카드 결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생활서비스 결제 전 영역을 커버하겠다는 전략이다.

앞서 신한카드는 모바일 앱카드가 오프라인 결제시장에서 안착하기 위해 20~30대 1인 가구와 여성 경제활동 인구 이용 증가 등 구조적 성장이 돋보이는 편의점 시장에 주목했다.

지난 6월말 신한 모바일 앱카드 고객 중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용금액 기준으로 71.1%에 달한다.

이때문에 2030세대 이용비중이 높은 편의점 업종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결제 플랫폼화를 추진하게 됐다는 게 신한카드의 설명이다.

고객입장에서는 GS25와 GS수퍼마켓에서 앱카드로 오프라인 결제 시 팝카드 할인서비스와 GS&POINT 자동 적립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오퍼인 샐리(Sally)를 통해 할인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신한카드는 올 하반기 이동통신사를 비롯해 다양한 영역에서 모바일 결제 플랫폼을 위한 파트너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모바일 결제 플랫폼을 구축해 2017년까지 앱카드와 유심카드를 합친 모바일 카드발급매수를 1000만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은 "본격적인 모바일 시대 진입을 앞두고, 지불결제시장에서 도태된다는 위기감에 제휴를 추진하게 됐다"라며 "향후 신한카드가 모바일 카드 1000만 플랫폼을 갖추게 되면, 현재의 1등 사업자 지위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백아란 기자




신한카드 위성호 사장(사진 가운데 오른쪽)과 GS리테일 허연수 사장(왼쪽)이 참석한 가운데 제휴조인식을 열었다. /신한카드 제공

# 재개발 프리미엄 고공행진… 6개월새 1억 껑충

### 역대 최대규모 가락시영 각광 개포·둔촌 주공 등도 상승세

최근 부동산시장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매매가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에서는 연초보다 1억원가량 상승한 지역도 속출하고 있다.

22일 송파구 한 중개업소에 따르면 가락시영 2차 43㎡의 최근 매매가는 6억1500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연초 매매가인 5억5000만원보다 6500만원 상승한 가격이다.

서울 송파 가락시영아파트는 지난 5월 조합원 분양을 마친 재건축단지다. 오는 10월 일반분양을 추진 중인 이 단지는 총 9510가구가 들어서는 국내 역대 최대규모 재건축 단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최근 부동산시장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매매가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시스

서초우성2차와 반포한양, 신반포한신5차, 삼호가든 등 재건축 단지가 붙어있는 잠원동도 매매가 상승세는 여전하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최근 거래된 전용면적 80.25㎡의 서초구 신반포아파트의 매매가는 8억95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1월 매매가인 8억원보다 1억원 가까이 상승했다.

이밖에도 서울 반포동 한신3차 전용 132㎡, 삼성동 상아3차 전용 160㎡ 등 강남권 아파트 8개 평형대의 매매가도 올 들어 1억원 이상 뛰었다.

여기에 하반기 서울 재건축·재개발 분양 물량이 2000년 이후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돼 이들 지역의 상승세는 지속될 예정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임대 제외·공공분양 포함)는 총 37개단지, 3만6223가구다.

강남 지역에서 나오는 아파트는 15개 단지 1만3940가구다. 강북 지역에선 25개 단지 1만7632가구가 분양된다. 이중 80% 이상이 재건축·재개발 단지다.

강남에서는 가락시영 외에도 서초우성2차, 강동구 고덕4단지, 강남구 상아아파트 3차, 송파구 풍납우성, 반포한양, 신반포한신5차, 삼호가든, 상아3차와 진흥빌라 등 재건축 아파트 등이 분양대기 중이다.

강북에서는 재개발 지역이 대다수다. 성동구에서는 금호20구역, 동대문구 전농11구역이 분양 대기 중이다. 서대문구는 홍제2구역, 은평구 녹번1-2구역, 옥수13구역, 행당6구역 등 재개발 물량이 분양을 준비 중이다. 동대문구도 답십리18구역 등 총 5개구역에서 일반분양 2046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정부의 재건축·재개발지원이 본격화되면서 이 시장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대거 물량이 소진되는 내년과 내후년에는 거품이 꺼질수도 있는 만큼 신중한 투자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석 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한화생명, 사랑카페로 현장과 소통** 김연배 한화생명 대표이사 부회장(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이 22일 63빌딩 본사 앞마당에서 열린 '찾아가는 사랑카페' 첫 행사에 참석해 임직원의 출근길에 음료를 나눠주고 있다. /한화생명 제공

## 하나·외환銀, 합병 예비인가 신청 승인

### "내달 10일 본인가 신청"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합병 예비인가 신청이 승인됐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하나·외환은행의 합병을 예비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은 합병결의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합병 본인가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산·운영·경영능력 등을 포함한 본인가 절차를 진행한다.

예비인가일 현재 확정되지 않은 임원진과 임원자격요건, 경영지배구조 적정성 여부 등도 본인가 신청시 심사받게 된다.

본인가는 통상 30일 정도가 소요되며 본인가 완료 후 통합법인이 출범하게 된다.

앞서 하나금융은 합병기일을 9월 1일로 잡았으며 이를 위한 주주총회를 내달 7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8월 10일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오늘 예비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후 일정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정확한 날짜가 잡힌 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늦어도 10월 1일 경 통합법인이 탄생할 전망이다. 통합은행의 상호에는 '외환'이나 외환은행의 영어 약자인 'KEB'가 포함된다.

이밖에 통합은행장에는 김한조 외환은행장과 김병호 하나은행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행명과 은행장은 지난 20일 출범한 통합추진위원회가 추천하게 된다. 행장 최종 후보는 사외이사 3명과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참여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이르면 내달 중순쯤 선정된다.

한편 하나·외환은행이 합쳐지면 자산규모(2015.3월말 연결기준) 290조원, 당기순이익(2014년말 기준) 1조2000억원, 지점수 945개, 직원수 1만5717명에 이르는 메가은행이 탄생하게 된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

## 내달 아파트 입주량 1만7580가구… 비수기 무색

### 최근 3년 평균 동월 물량 비슷 지방은 전월보다 17.6% 증가

여름 휴가철 비수기인 오는 8월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 물량은 34개 단지, 1만7580가구로 조사됐다. 전달보다 다소 줄기는 했지만 최근 3년간 평균 동월 물량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22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다음달 입주 아파트는 전월 대비 18.4% 감소했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월 평균(1만7061가구)보다는 500여 가구 많은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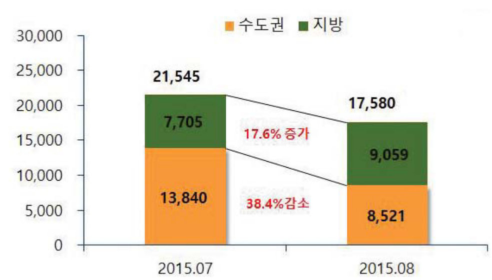
수도권에서는 전월 대비 38.4% 감소한 총 8521가구가 입주한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이촌첼리투스' 460가구와 종로구 무악동 '인왕산2차IPARK' 167가구 등 627가구가 공급된다.

현대산업개발이 종로구 무악동 무악연립2차를 재건축한 '인왕산2차아이파크'는 지하3층~지상17층, 5개동, 전용84~112㎡로 건립된다.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사직로와 통일로를 따라 광화문·시청·서울역 등으로 출·퇴근이 용이하다. 전용84㎡형 매매가격은 6억~6억5000만원 수준에 형성돼 있다. 전세가격은 5억2000만~5억4000만원이다.

경기에서는 고양시 신원동 '삼송우남퍼스트빌' 611가구와 수원시 권선동 'IPARK시티3차' 3~4차 1152가구, 화성시 청계동 '동탄2신도시대원칸타빌2차(A33블록)' 714가구 등 6033가구가 입주를 준비 중이다.

대원이 동탄2신도시 A33블록 일대에 공급한 '동탄2신도시대원칸타빌2차'는 지하2층~지상25층, 8개 동, 전용84~135㎡로 구성됐다. 전용84㎡형 매매가격은 3억7000만~3억8000만원이다. 전세가격은 2억5000만원 수준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전월대비 지역별 8월 입주물량 비교** (단위:가구)




2015년 7월 21일 조사기준. 건설사 사정에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부동산 114

인천 입주 물량은 연수구 송도동 '송도더샵마스터뷰'의 1861가구다. 이 단지는 지하2층~지상34층, 17개 동, 전용72~196㎡로 구성됐다.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대입구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 제3경인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강남권 및 경기권으로 출·퇴근이 편리하다. 전용84㎡형 매매가격은 4억5000만원, 전세가격은 3억2000만원~3억5000만원 수준에 형성돼 있다.

같은 기간 지방은 17.6% 증가한 9059가구가 입주 대기 중이다. 지방별로는 세종시가 총 3507가구 입주해 가장 많다. 이밖에 ▲대구(1408가구) ▲충남(1060가구) ▲대전(995가구) ▲경북(686가구) ▲전남(582가구) ▲부산(486가구) ▲경남(394가구) ▲강원(391가구) 등 순이다. /김형석 기자

## 한화건설 '동래 꿈에그린' 내달 부산서 732가구 분양

### 해운대~시청 등 사통팔달

한화건설은 오는 8월 부산 동래구 낙민동 133-3 일원에 '동래 꿈에 그린'을 분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에서 지상 46~49층, 4개 동, 전용면적 84㎡(▲84㎡A 366가구 ▲84㎡B 366가구) 총 732가구 규모다.

부산지하철4호선 낙민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1·4호선 환승역인 동래역, 1,3호선 환승역인 연산역도 가깝다. 복선전철인 동해남부선의 동래역(2016년 개통 예정)이 접해 있어 해운대~센텀시티~동래~시청 등 부산 핵심권역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동래고, 사직고, 동래여고 등 동래구 내 명문학군이 조성돼 있고, 홈플러스, 메가마트 등 쇼핑시설도 가깝다. 부산 시민들이 많이 찾는 약 14㎞ 규모의 온천천 시민공원이 바로 인접해 있다. 사업지와 접해 조성 예정인 3000평의 수민어울공원도 인접하다.

분양홍보관은 해운대구 센텀시티 내 센텀큐빌딩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견본주택은 부산시 해운대구 무동 1129-7에 오픈할 예정이다. /김형석 기자

# '드럼+통돌이' LG 신개념 세탁기 나왔다




LG전자 H&A사업본부장 조성진 사장(왼쪽 두번째)과 한국영업본부장 최상규 사장(왼쪽 세번째)이 22일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새로 출시한 세탁기 '트롬 트윈워시'를 선보이고 있다. '트롬 트윈워시'는 드럼세탁기 하단에 통돌이 세탁기를 결합해 두대의 세탁기를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것이 특징이다. /손진영 기자 son@

### '트롬 트윈워시' 출시 8년연속 시장 1위 도전

"혁신으로 글로벌 세탁기 시장 1위를 지키겠다."

조성진 LG전자 사장(H&A 사업본부장)은 22일 서울 여의도동 LG트윈타워에서 열린 'LG 트롬 트윈워시' 출시 발표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LG전자는 드럼세탁기와 전자동 세탁기를 결합한 LG 트롬 트윈워시로 8년 연속 글로벌 세탁기 시장 1위에 도전한다.

최근 글로벌 가전 시장 침체와 중국 가전 업체들의 빠른 추격으로 전반적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LG전자는 지난 2008년부터 브랜드별 매출액 기준 세탁기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LG전자는 프리미엄 제품인 트롬 트윈워시가 올해 전체 세탁기 판매량의 1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트롬 트윈워시는 LG전자가 세계 최초로 드럼세탁기 하단에 일명 '통돌이' 세탁기인 트롬 미니워시를 결합한 혁신 제품이다.

조 사장은 "혁신적인 기술 기반의 시장선도 제품으로 7년 연속 지켰던 글로벌 세탁기 시장 1위를 수성할 것"이라며 "트윈워시는 새로운 세탁 경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롬 트윈워시는 세탁기 두 대 중 한 대만, 또는 두 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가령 이불빨래는 상단 드럼 세탁기에, 하단에서는 옷 세탁을 하는 식이다. 이달 한국을 시작으로 미국, 중남미, 중국 등에 순차적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조 사장은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권에서는 가족 구성원 별로 옷을 따로 세탁하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어 트윈워시를 개발하게 됐다"며 "제품을 구상하고 개발하기까지 8년의 시간이 걸렸으며 투자비는 기존 제품 대비 5배 많은 약 200억원이 들었다"고 말했다.

LG전자는 이 세탁기를 지난 1월 미국에서 열린 국제가전전시회(CES)에서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수직으로 회전하는 상단 세탁기와 수평으로 회전하는 하단 세탁기의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품 공개 6개월 후 출시할만큼 완성도에 공을 들였다.

트윈워시 가격은 200만원 중후반대로 고가 프리미엄 가전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특히 하단 미니워시 세탁기는 별도로도 판매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한화, 협력사와 '상생' 머리 맞댄다

### 7곳 대표 참석 간담회

한화는 2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우수 협력회사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열린 행사에는 최양수 한화 대표이사와 홍기석 보성 테크놀로지 사장을 비롯해 우수 협력회사로 선정된 7개사 대표가 참석했다.

최 대표는 6월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가진 협력회사들과의 만남에서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또 이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부터는 우수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공정개선, 환경·안전 등의 컨설팅 활동을 통해 협력회사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홍 사장은 "이번 간담회는 한화와 협력회사가 동반성장해 나갈 방향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행사였다"며 "앞으로도 한화가 협력회사들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상생협력에 더욱 힘써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화는 2009년부터 품질, 납기 등의 기준으로 우수 협력회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우수 협력회사에는 물품대 현금지급, 각종 담보면제 등의 지원을 지속했다.

한화는 '함께 멀리'라는 김승연 회장의 동반성장 철학을 바탕으로 협력회사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SKT

## 휴가철 특별소통대책 시행 245명 실시간 모니터링



22일 SK텔레콤의 구성원들이 하계 휴가철을 대비해 부산 해운대 인근의 기지국 장비를 특별 점검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

SK텔레콤은 여름 휴가철에 피서지 등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트래픽에 대비해 기지국 용량 확보와 이동기지국 운영 등 특별 소통대책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소통대책은 23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40일간 시행된다. 휴가가 집중되는 27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2주간은 집중 관리기간으로 정해 매일 245명의 인력이 실시간 모니터링에 나선다.

특별소통대책을 통해 관리되는 설비는 전국 461곳 주변의 9000여개 기지국이다. 기존의 트래픽 통계와 문화관광체육부의 여름철 휴가 설문 결과 데이터 등의 분석을 통해 선정됐다. SK텔레콤은 트래픽 급증 예상지역에 이동기지국을 배치하고, 사전 기지국 용량증설 등 을 실시했다. 아울러 태풍이나 장마에 대비해 시설물 안전점검을 마쳤다. /정문경 기자 hm0108@

2015 에너지 위너상

## 삼성전자 '4way 카세트 냉난방기' 대상

### 스마트 에어컨 Q9000 '에너지효율상' 수상



삼성전자가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에서 총 10개 제품을 수상했다.

삼성전자는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19회 '올해의 에너지위너상' 시상식에서 자사의 '4way 카세트 냉난방기'(사진), '스마트 에어컨 Q9000', '노트북 Book 9' 등 총 10개 제품이 수상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4way 카세트 냉난방기'는 에너지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받았다. 4way 카세트 냉난방기는 연중 사용하는 냉·난방 겸용의 상업용 제품으로, 국내 냉난방기 중 최고 효율인 5.51(R)이 특징이다. 냉매 사용량을 최대 35% 저감해 지구 온난화 방지에 기여하는 고효율 마이크로 채널 실외 열교환기와 전기 요금을 절감하는 압축기 고속화 기술을 적용했다.

'스마트 에어컨 Q9000'은 에너지효율상을 수상했다. 초고효율 BLDC 압축기와 조절전팬을 적용해 일반 정속형 제품보다 전기요금을 75%나 줄일 수 있다. 에너지기술상을 받은 '노트북 Book 9'은 독자적인 배터리 장수명 알고리즘으로 수명 사이클을 3배 가량 늘린 제품이다. 에너지특별상을 수상한 'LED 커브드 TV'는 고효율 LED 광원과 아날로그 전류제어 방식을 적용해 에너지 효율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 외에도 키친핏 하냉동 냉장고, 엑티브워시 세탁기, 시스템 에어컨 DVM S, 스마트 제습기, 스마트 공기청정기 AX 7000·9000 등이 에너지위너상을 수상했다. /양성운 기자

## LG, 13개 제품·62개 모델… 업계 최다

### '네온2' 친환경 신기술 '환경부 장관상' 수상

LG전자의 13개 제품, 62개 모델이 '제19회 올해의 에너지위너상'을 수상했다.

22일 LG전자에 따르면 이는 업계 최다 제품, 최다 모델이다.

'에너지위너상'은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와 에너지관리공단 등이 후원한다.

유엔기구로부터 에너지 효율화 확산의 모범 사례로 인정 받았다. 고효율 제품과 에너지 절약에 힘쓴 기업을 선정, 시상한다.

이번에 에너지대상을 받은 LG 태양광 모듈 '네온2'는 6형대(15.67㎝) N타입 웨이퍼 기준 세계최고 모듈 효율(19.5%)을 달성한 초고효율 제품이다. '네온2'는 친환경 에너지 분야의 신기술을 인정 받아 환경부장관상도 수상했다.

LG전자의 LED 고천장등은 에너지기술상을 받았다.

이와 함께 에너지효율상을 수상한 상냉장 하냉동 타입 냉장고 'V9500'는 고효율 인버터 리니어 컴프레서 기술을 적용했다.

한편 LG 울트라HD TV는 TV 업계 최다인 6개의 녹색기기부문 에너지 위너상을 수상했다.

그 밖에 드럼세탁기 트윈워시, 전자동 세탁기 블랙라벨, 듀얼 에어컨, 한랭지형 시스템 에어컨, 상업용 인버터 에어컨, 인버터 제습기, 의류 관리기 스타일러, 광파오븐 등이 녹색기기 부문 에너지위너상을, LED 평판조명이 녹색조명부문 에너지위너상을 수상했다. /임은정 기자 eunj71@

# 삼성전자, 협력사에 142억 쏜다

### 상생·동반성장 앞장 103곳 상반기 인센티브

삼성전자가 오는 24일 103개 반도체 협력사에 142억원 규모의 상반기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인센티브는 지급 대상 업체 수와 금액 모두 사상 최대 규모다. 삼성전자는 상생·동반성장을 위해 2010년부터 반도체 사업장에 상근하는 제조, 건설, 환경안전 관련 협력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가 반도체 협력사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인센티브는 안전 인센티브(환경안전·인프라 부문의 사고 발생 제로화와 그에 따른 보상을 위해 2013년부터 시행)와 생산성 격려금(생산·품질 관련 협력사 격려를 위해 2010년부터 시행) 등 두 가지다.

인센티브 지급 대상업체 수와 지급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0년 46개 업체 50억6000만원에서 지난해 100개 업체 209억원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는 141억80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 삼성전자는 최근 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연 1회 연초에 지급하던 인센티브를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로 나누어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하반기 인센티브는 내년 2월 지급 예정이다.

반도체 설비 유지보수 전문기업 '나노원텍'의 오세룡 대표는 "협력사 인센티브 제도 덕분에 우리 직원들도 한국 반도체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며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삼성전자는 향후에도 협력사들과 지속적으로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협력사의 자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조한진 기자 hjc@

# OCI 태양광사업 '볕들까'

### 머티리얼즈 등 자회사 매각 추진 발전소·에너지저장 등 사업 전환

OCI가 OCI머티리얼즈, OCI리소시스, OCI 케미칼 소다회 사업 등을 매각함에 따라 태양광 발전소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확장에 나선다.

이우현 OCI 사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빌딩에서 기업설명회(IR)를 열고 2분기 실적발표와 향후 사업방향을 발표했다.

OCI는 올해 2분기 매출액 7436억원, 영업이익 62억원, 당기순이익 215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7080억원) 대비 5% 증가했다. 이 기간 영업이익은 (290억원) 78.6% 감소했고, 당기순이익(70억원)은 204.6% 증가했다.



이 사장은 "OCI머티리얼즈 매각가는 현재 시장에서 7000억원대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1조원 규모로 평가된다. 여전히 매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명확하게 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너무 비싸다면 부분적인 매각만 가능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태양광 사업과 관련이 있는 폴리실리콘의 경우 전 세계 수요의 55%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내년에는 60%로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OCI가 이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며 "미국·중국 무역 분쟁에서 OCI가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2016년 미국, 일본 태양광 정책 종료를 앞두고 태양광 설치 수요가 올해 52GW, 이듬해 56GW로 늘어날 것"이라며 "나아가 2020년에는 100GW까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원자력발전소 90개에 해당하는 양이다. 향후 OCI가 시장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태양광 사업인 알라모6·알라모7 프로젝트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정용기 기자 yonggi@metroseoul.co.kr

# 에쓰오일 2분기 영업익 6130억원… 흑자전환

### 윤활기유 공급 증가에 재고이익도 크게 늘어

에쓰오일은 22일 컨퍼런스콜을 개최해 올해 2분기 매출액 5조1424억원, 영업이익 6130억원, 당기순이익 430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7조4192) 대비 30.7%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543억원) 대비 흑자 전환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682억원) 대비 531.1% 증가했다.

에쓰오일은 유가안정으로 인한 수요 확대로 판매물량이 증가해 매출액은 전분기(4조3737억원) 대비 17.6% 증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에쓰오일은 "2분기 실적은 윤활기유 공급 증가와 재고이익이 견인했다. 윤활기유는 그룹Ⅲ의 생산 비중을 70%에서 75%로 늘려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요에 대응했다.




서울 공덕동 에쓰오일 본사.

그 결과 영업이익이 전분기(730억원)에 비해 9% 상승했다"며 "2분기 재고이익은 총 1100억원을 기록했다. 정유사업에서 950억원, 150억원은 윤활기유에서 나왔다. 석유화학 부문에선 재고이익은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또 "상반기 호실적 바탕으로 상반기에 대한 중간배당을 전년보다 오른 1100원으로 실시했다. 하반기 배당은 연간 성과를 바탕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회사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연말 기준으로 배당성향은 전년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에쓰오일은 경상북도 온산공장에 5조원 가량을 투입해 시설 고도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정유부문은 저유가로 인한 수요 증가와 국제 시장에서의 양호한 정제마진에 힘입어 1분기보다 293.2% 증가한 468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석유화학부문의 영업이익은 전분기보다 41.9% 증가한 655억원을 기록해 영업이익률도 9.2%로 소폭 상승했다.

/정용기 기자 yonggi@

# 카톡으로 간편·알뜰 해외여행 준비

### 대한항공,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도입

대한항공은 22일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를 항공권 결제 수단으로 도입했다.

카카오페이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등록하고 비밀번호 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결제하는 서비스다.

대한항공은 이번 카카오페이 서비스 도입으로 항공권 결제를 위해 보안프로그램 설치나 전자상거래 인증 등 복잡한 절차가 생략돼 고객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항공 모바일 사이트(m.koreanair.com)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카카오페이로 항공권 구매 시 국내선 7%, 국제선 5% 운임이 할인된다.




홈페이지(kr.koreanair.com)에서 카카오페이를 통해 구입할 경우 국내선 5%, 국제선 3%의 운임이 할인된다.

/이정필 기자 roman@

# 제주항공, 상반기 고공비행… 영업익 288억

### 매출액 전년比 22% 증가

제주항공은 올해 상반기 매출액 2869억원, 영업이익 288억원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매출액은 전년 상반기 2344억원보다 2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30억원보다 851% 증가했다.

이에 따른 당기순이익은 323억원을 기록해 전년대비 578% 늘어났다.

매출은 국내선 929억원(32%), 국제선 1743억원(61%), 기타 197억원(7%) 등의 분포를 보였다.



제주항공은 항공기 보유대수 20대를 넘어서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안정적인 원가 절감의 기반을 마련했고 저유가 기조가 영업이익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용기 기자

**한국지엠**

### "쉐보레 스파크 타 보세요" 내달 전국서 시승행사

한국지엠이 '쉐보레 더 넥스트 스파크'의 판매개시에 맞춰 전국에서 고객체험 시승을 진행한다.

사측은 8월 8일부터 서울 코엑스, 부산 더 베이 101, 인천 스퀘어원, 대구, 대전 등 각 지역에서 신형 스파크의 시승과 상담을 실시한다.

/이정필 기자




★★★★★
영화 속 서핑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야 하는 인생과 같다!
- The warp -
아들바보 억척엄마의 자아찾기
라이드
:나에게로의 여행
RIDE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헬렌 헌트
〈더 기버:기억전달자〉 브렌튼 스웨이츠
절찬 상영중!
ULTRAMEDIA
|감독/주연|헬렌 헌트 |수입/배급| tcast cinecube |15세 이상 관람가|
SIXSALES

# 탄력받은 토요타, 국내 SUV시장 질주

## 상반기 시에나 413대 · RAV4 861대 판매로 큰폭 성장세


RAV4.


2015 뉴 시에나.

시에나와 RAV4 등 토요타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라인이 국내 시장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시에나와 RAV4는 모두 가솔린 모델로 올해 상반기 큰 폭의 판매 성장을 거뒀다.

22일 한국토요타에 따르면 미니밴 시에나는 올 상반기 413대가 판매됐다.

전년 동기(287대) 대비 43.9% 성장한 수치다.

지난달에는 125대가 팔려 출시 이후 월간 최대 판매를 기록했다.

2011년 11월 국내에 첫 출시된 시에나는 국내에서 △오토만 시트로 대표되는 쾌적한 실내공간 △3열 파워폴딩 등 다양한 편의장치 △동급 최고의 안전성능 등이 적용됐다.

4륜 구동 모델은 수입 미니밴 시장에서 시에나가 유일하다.

한국토요타는 올해 2월에 3세대 시에나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2015 뉴 시에나'를 통해 시에나의 상품성을 강화했다.

미국서 판매되는 최고급 사양인 리미티드(시에나 3.5 리미티드, 시에나 3.5 리미티드 AWD)에 다양한 편의·안전장치를 기본 장착했다.

토요타 관계자는 "한층 더 고급스러워진 인테리어에 4.2인치 TFT LCD 디스플레이, 한국형 내비게이션, 사각지대 감지장치, 후측방 경고시스템, 기존 7개에서 동반석 시트쿠션 총 8개의 SRS 에어백, 총 4개의 유아용 차량 안전시트 장착 등 대폭 강화된 기본장착 옵션이 국내 고객의 호평을 받고 상반기 판매증가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요시다 아키히사 한국토요타 사장은 "2015 뉴 시에나는 지속적으로 한국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일본 본사와 미국 생산공장이 이를 꾸준히 제품개발에 반영한 고객만족 실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아울러 토요타가 2009년 국내 출시한 크로스오버 RAV4는 올 상반기 861대가 판매됐다.

전년 동기 대비 39.3% 증가한 실적으로 경쟁 모델인 혼다 CR-V를 넘어 동급 가솔린 SUV 중 가장 많이 판매됐다.

한국토요타가 2013년 출시한 4세대 RAV4는 날렵해진 외관디자인과 2열에 3명이 앉아도 불편함이 없는 넓은 실내공간, 동급 최대 트렁크 용량을 갖췄다.

스포티한 주행감각을 느낄 수 있는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에코, 노말, 스포츠)를 전 차종에 기본 장착했다.

4륜구동 모델의 첨단 토크배분장치인 '다이내믹 토크 컨트롤 AWD 시스템'을 스포츠 모드와 연동, 코너링 퍼포먼스를 높였다.

또 전 모델에 전면 4세대 어드밴스드 에어백과 운전석 무릎과 조수석 쿠션 에어백을 포함한 '8 에어백'을 기본 적용했다.

사측은 "뒷도어의 열림 높이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파워백 도어와 사각지대 감지장치 등의 첨단 사양을 모든 차종에 기본 장착했음에도 4WD 3740만원, 2WD 3230만원의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국내 고객의 높은 기대 수준에 부응한 것이 인기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토요타는 올 하반기 다양한 캠페인과 프로모션을 통해 국내 SUV 시장공략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이정필 기자 roman@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32



서울 삼성동 코엑스 에너지위너상 전시장에 'CO₂ 저감상'을 수상한 티볼리 디젤이 전시됐다.

## 쌍용차 티볼리 디젤, 친환경성 입증

### '에너지위너상' 수상 이산화탄소 저감 인정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최종식)는 티볼리 디젤 모델이 높은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인정받아 에너지위너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기술혁신을 통해 뛰어난 효율성을 달성한 티볼리 디젤은 '$CO_2$ 저감상'을 수상했다.

수상의 영예를 안은 제품들은 24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 전시된다.

에너지위너상은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주최한다.

자동차, 전자, 건축물 등 다양한 부문에서 친환경 마인드와 기술혁신을 통해 에너지 저감을 달성한 기업 또는 기관에 수여한다.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ESCAP)가 특별 후원한다.

티볼리는 저속토크 중심으로 개발된 e-XDi160 엔진과 아이신(AISIN AW) 변속기의 최적 조합으로 유로6 배출가스규제를 만족하며 15.3km/ℓ(2WD, A/T)의 복합연비와 $CO_2$ 배출량128g/km을 달성했다.

쌍용차는 열효율 향상을 위해 엔진에 저속지향형 고효율 터보차징 시스템, 스마트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가변오일펌프 등의 기술을 적용했다.

e-XDi160 엔진은 2세대 한국형 디젤엔진으로 저중속 실용영역(1500~2500rpm)에서 최대토크를 구현한다.

티볼리는 1월 출시 이후 상반기 동안 국내외에서 2만7000여대가 판매됐다. /이정필 기자

## 60년 역사 녹아든 '뉴 크라이슬러 300C' 호평

**FCA코리아**

### 1955년 C-300으로 첫 등장 美 대표 프리미엄 세단으로



FCA코리아가 이달 초 60년 전통을 이어온 '뉴 크라이슬러 300C'(사진)를 출시했다.

22일 FCA코리아에 따르면 크라이슬러 300C는 1955년 C-300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이래 60년의 역사 동안 특유의 당당한 스타일과 강력하면서도 부드러운 주행성능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정통 프리미엄 세단의 전통을 고수한 대형 세단이다.

뉴 300C는 2015년 J.D.파워 대형 세단 부문 초기품질조사 1위, 워즈오토 선정 '10대 베스트 인테리어' 등 다양한 수상 경력을 쌓으며 최고의 프리미엄 세단으로 호평 받고 있다.

국내 출시 모델은 후륜구동 모델인 '뉴 크라이슬러 300C'와 4륜구동 모델인 '뉴 크라이슬러 300C AWD'의 2개 트림이다.

뉴 300C는 우아한 아메리칸 디자인 전통에 명품 디자인의 본고장 이탈리아의 감성이 더해지면서 더욱 세련되고 물 흐르듯 유려한 뉴 300C만의 특별한 실루엣으로 거듭났다.

뉴 300C의 토크플라이트(TorqueFlite) 8단 자동변속기는 부드럽고 효율적으로 동력을 전달한다.

신형 첨단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은 초당 13회씩 조향 각도, 차량 속도, 엔진 RPM, 섀시 컨트롤 시스템 등을 분석해 최적의 스티어링 정밀도로 무장했다.

뉴 300C의 3.6L 펜타스타 V6 엔진은 2011년부터 3년 연속으로 워즈오토 선정 '10대 베스트 엔진'에 뽑혔다.

이는 286마력의 최고 출력과 36kg·m의 최대 토크를 발휘한다.

뉴 300C의 복합연비는 9.2km/ℓ(고속 12.1km/ℓ, AWD는 복합 8.7km/ℓ, 고속도로 11.3km/ℓ)이다.

뉴 300C에는 프리미엄 세단의 명성에 걸맞게 80가지 이상의 첨단 안전·편의 장치가 기본 장착됐다.

국내 판매 가격은 뉴 크라이슬러 300C는 부가세 포함해 4480만원, 뉴 크라이슬러 300C AWD는 5580만원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췄다.

이 같은 뉴 300C의 지속 비결은 역사에 있다. 1955년 처음 출시한 크라이슬러 300은 5.4L V8 헤미(Hemi) 엔진에 최고출력 300마력으로 당시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자랑하는 자동차였다.

1964년 300K는 3647대가 판매되며 레터 시리즈의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다.

오리지널 300 레터 시리즈의 마지막 모델인 300L은 1965년 선보였다.

1970년 레터 시리즈는 고성능 자동차 업체인 허스트사에서 개발한 300 허스트(300 Hurst)를 통해 이름을 이어갔다.

20년이 지난 1999년 300M을 통해 1965년 이후 34년 만에 레터 시리즈가 돌아왔다.

300 레터 시리즈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300M은 앞바퀴굴림 방식의 세단이다.

253마력의 3.5L 24밸브 알루미늄 V6엔진과, 4단 오토스틱 고성능 자동변속기를 적용했다.

300이 처음 등장한 지 50주년이 된 2005년 크라이슬러는 300, 300 투어링, 300 리미티드, 300C 등 새로운 300 세단 시리즈를 발표했다.

새로운 300 4-도어 세단은 미국의 자동차 전문지 모터트렌드 선정 '2005년 올해의 차'에 뽑혔다.

/이정필 기자

# ‘中 참패’ 국내 대형마트, 동남아로 선회

**인니 시장, 연평균 13% 성장**
**베트남, 시장개방 10년 안돼**
**롯데마트 성공, 교두보 확보**

중국 시장에서 ‘참패’를 맛본 국내 대형마트들이 동남아 시장에 눈을 돌리고 있다. 현재까지의 실적을 보면 동남아 시장에서의 전망은 밝아 보인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진출한 롯데마트(대표 김종인)는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만 1조원의 매출을 올렸다. 롯데마트는 2008년 10월 인도네시아 대형마트 마크로(Makro) 19개를 인수해 대형마트 사업을 시작, 지난해까지 39개 점포를 확보했다. 2011년 약 8800억원의 매출을 올린데 이어 2012년 1조원을 돌파했으며 현재까지 연 매출 1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대형마트 시장은 2002년부터 13년째 평균 30%씩 신장하고 있는 추세다. 인구도 2억4000만명으로 세계 4위 규모를 자랑한다.

다국적 유통기업인 영국의 ‘테스코’, 프랑스의 ‘까르푸’, 홍콩의 ‘데어리팜’ 등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관심을 갖는 이유다.



롯데마트 베트남 남사이공점. 매장면적 6200평, 문화·편의 시설 3200평의 베트남 최대 단일 쇼핑센터이다. /롯데마트 제공

롯데마트는 적극적인 신규 점포 출점을 진행하며 현지에서 차별화된 ‘한국식 마케팅’을 선보일 방침이다.

베트남 대형마트 시장도 전망이 밝다. 베트남은 2007년 WTO에 가입하며 유통시장을 개방, 시장이 개방된 지 10년이 채 안됐다. 1억 인구의 60%가 30대 미만인 소비층이라는 점과 6%대 경제성장률에 따른 소비 성향 증가 등도 매력적이다.

롯데마트의 성공적인 진출도 새롭게 베트남 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유통업체들에게 희망적이다. 롯데마트는 2008년 12월 베트남 ‘남사이공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0개의 점포를 운영 중이다. 2011년 620억원 수준이던 매출은 지난해 1580억원까지 신장했다.

특히 남사이공점은 베트남 내 단일 쇼핑센터로는 최대 규모다. 매장 면적 6200평에 3200평의 문화·편의시설을 갖췄다. 또 한국 인삼·인삼주·라면·소주 등의 특별 매장을 구성해 한국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김영균 롯데마트 동남아 본부장은 “2008년 말 베트남 1호점을 오픈한 이후 출점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며 “베트남 현지에서 롯데마트라는 브랜드가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세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이마트, 중국·동남아 진출 현황

| | | 중국 | 동남아 |
|---|---|---|---|
| 진출시기 | 롯데마트 | 2007년 | 2008년 10월 |
| | 이마트 | 1997년 | 올 하반기 예정 |
| 점포수 | 롯데마트 | 103개 | 49개 |
| | 이마트 | 10여개 | 진출 예정 |
| 실패요인 &전략 | 롯데마트 | 타 오프라인 채널과경쟁심화, 현지화 실패 | 차별화된 한국화 |
| | 이마트 | | 철저한 현지화 |

롯데마트의 성공적인 동남아 진출에 이마트(대표 김해성·이갑수)도 올 연말까지 베트남에 진출하겠다고 선포했다. 지난해 12월 이마트 베트남 법인을 세우고 현지인 위주의 직원 채용도 시작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롯데마트와는 반대되는 ‘철저한 현지화’ 정책을 펼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마트의 현지화 전략은 이미 중국 시장에서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업계는 테스코와 까르푸가 동남아 시장에서 ‘현지화’에 성공해 자리를 잡은 이상 후발 주자인 국내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쟁사를 넘는 무언가가 있어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시장 진출이 이미 실패한 상황에서 이제는 동남아에 주력해야 한다”며 “중국에서의 실패는 동남아 시장 제패에 좋은 스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마트 중국 점포는 한때 27개나 됐으나 2011년부터 철수, 현재 9개만 남았다. 전문가들은 현지화 실패와 타 오프라인 채널과의 경쟁심화를 원인으로 분석했다. 롯데마트도 중국내 103개 점포를 확보했으나 올해 칭다오시 2곳·웨이하이시 1곳·웨이팡시 1곳 즌 4곳의 철수를 시작으로 점포 효율화 작업을 실시, 점포 수를 줄일 계획이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 홈쇼핑, 亞 벗어나 美·멕시코·러시아로

**GS, 모스크바 국영 통신사와 합작사 계약**
**CJ오쇼핑·롯데·현대 등도 해외 판로 확대**

GS홈쇼핑·CJ오쇼핑·롯데홈쇼핑·현대홈쇼핑· NS쇼핑 등 국내 홈쇼핑업계가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시장을 예측할 수 있었던 중국, 동남아 등 인접한 아시아에서 벗어나 글로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CJ가 최근 중남미시장을 노크한 데 이어 GS는 러시아를 택했다.

22일 GS홈쇼핑(대표 허태수)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국영 통신사 로스텔레콤과 홈쇼핑 합작사인 빅 유니버셜 몰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GS홈쇼핑은 중국과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 진출했다. 해외 홈쇼핑 취급액은 2013년 6818억원, 2014년 8941억원에 이어 2015년에는 1조3000억원에 달할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향후 2~3년 내에는 2조원 돌파도 가능하리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CJ오쇼핑은 지난 5월 중남미 미디어그룹 텔레비사와 50대50 비율로 자본금 2300만 달러를 출자해 멕시코 합작법인 ‘텔레비사 CJ그랜드’를 설립하기로 했다. 채널명은 ‘CJ그랜그쇼핑’이다. CJ오쇼핑은 멕시코 현지에서 K-POP 가수 공연이 10여 차례 열리는 등 한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온라인 쇼핑 규모도 빠른 속도로 느는 것에 주목했다. 회사 측은 3년내 손익분기점 달성, 4년차인 2018년 연간 취급액 1000억원을 돌파한다는 목표다.



말레이시아 합작 홈쇼핑인 고샵 쇼호스트들이 상품 소개를 하고 있다. /GS샵 제공

2004년 중국을 시작으로 인도, 일본,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 홈쇼핑 벨트’를 구축한 CJ오쇼핑의 취급액은 2004년 180억원에서 2013년 1조7970억원으로 1조779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38% 수준이었던 해외 취급액을 내년 5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CJ오쇼핑은 또한 국내 중소기업의 진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 아웃소싱 전문 자회사인 CJ IMC를 중심으로 멕시코 시장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롯데홈쇼핑은 2004년 대만 푸방 그룹과 FMT를 설립한 후 2005년 1월 ‘모모홈쇼핑’이라는 채널명으로 첫 해외 전파를 쐈다. 이후 2010년 8월 중국 럭키파이 홈쇼핑 지분을 인수하며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 올해에는 TV 홈쇼핑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을 통해서도 한국 상품을 중국에 소개하는 등 판로를 확대할 방침이다.

롯데홈쇼핑은 현재 중국 상하이·항저우·닝보·정저우·광저우·충칭 등 6곳에서 사업권을 확보했다. 또한 역직구 인터넷 전용몰도 개설 추진 중이다. 국내 중소기업을 대신해 수출 업무 대행, 재고 관리, 배송-판매 프로세스를 전담하면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대홈쇼핑은 지난 4월 태국 홈쇼핑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 중국과 베트남에 이은 세 번째다. 현대홈쇼핑은 연내 개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 태국 인터치 미디어와 합작법인 ‘하이쇼핑’을 설립했다. 자본금 5억 바트(한화 175억원 상당) 가운데 2억4500만 바트를 출자해 지분 49%를 확보했다. 5월부터 상품기획자(MD)·PD 등 10여명의 인력을 파견해 현지 인기상품 소싱과 방송을 준비 중이다. 첫 해 매출 200억원, 5년 내 15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NS홈쇼핑은 2009년 미국 LA에 이어 2011년 중국 상해에 진출했다. 미국에서는 100% 택배로 차별화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올 들어서는 2월 독일 세계주방가전박람회에서 ‘도깨비방망이’, ‘대성널리팝 믹서기’ 등 국내 중소 협력사 상품을 선보였다. 3월 중순부터는 2015 푸덱스 재팬을 통해 성과를 보인 ‘다시팩세트’, ‘민물장어’ 등을 시판, 수출 물꼬를 트고 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홈쇼핑 해외진출 현황**

**GS**
2009.11 인도
2011.05 태국
2012.05 베트남
2012.05 중국
2012.08 인도네시아
2013.05 터키
2014.03 말레이시아
2015.07 러시아

**롯데**
2005.01 대만
2010.08 중국
2012.02 베트남

**현대**
2011.07 중국
2014.05 베트남
2015.04 태국

**NS**
2009.03 미국
2011.01 중국

**CJ**
2004.04 중국
2009.07 인도
2011.01 일본
2011.07 베트남
2012.06 태국
2012.12 터키
2013.10 필리핀
2015.06 멕시코진출

# 입맛 돋우는 中伏 보양식

## 외식업계 보양식 속속 출시 초계탕·갈비탕·곰탕 등 간편한 조리법 제품 인기





제일제면소 '초계국수'와 강강술래 '한우사골곰탕'.

23일은 중복이다. '삼복지간(三伏之間)에는 입술에 붙은 밥알도 무겁다'는 속담처럼 더위로 인해 기운이 약해질 수 있는 여름 한 가운데 식품·외식업계가 입맛을 돋우는 보양식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면 전문점 제일제면소에서는 23일부터 여름 한정 메뉴로 '초계탕'을 재해석한 '초계국수'를 판매한다. 이 메뉴는 식초와 겨자로 맛을 낸 차가운 동치미 국물을 소면에 붓고 쫄깃한 닭고기와 아삭한 백김치, 배, 오이 등을 올려 낸다. '초계국수 차림상' 주문 시 초계국수 외에 일품 삼겹살구이 3조각과 샐러드, 유부초밥이 함께 제공돼 더 든든하게 즐길 수도 있다.

외식이 번거롭다면 간편식으로 집에서 손쉽게 보양식을 즐길 수도 있다.

대상 청정원 '홍삼갈비탕'은 두툼한 갈비살과 양지살로 끓인 갈비탕에 국내산 홍삼농축액과 인삼을 넣어 만든 간편 보양식이다. 뜨거운 물에 중탕을 하거나 용기에 덜어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간편하게 보양식을 먹을 수 있다.

한식전문점 강강술래에서도 가정간편식으로 '한우사골곰탕'등을 판매중이다. 한우사골곰탕은 100% 한우로만 우려내 맛이 진하고 고소하며 소금, 조미료, 향미증진제 등 일체의 첨가물을 넣지 않아 건강하게 즐길 수 있다. 레토르트 방식을 적용해 상온 보관이 가능하고 직접 냄비에 붓고 끓이거나 봉지 째 데워 바로 먹을 수 있어 간편하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여름 보양식을 즐기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한우 뼈 부위를 이용한 국물요리는 마그네슘·철·황·칼륨 등 무기질이 풍부한 영양식품으로 면역력 증진 및 여름철 원기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말했다.

전통 보양식을 대신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신개념 보양식'도 있다. 대표적인 식재료가 연어다. 연어는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B 복합체를 비롯해 각종 미네랄 등의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보양식으로 우수하다. 동원F&B·CJ제일제당·사조해표 등이 선보인 연어캔은 특별한 조리 없이 바로 취식할 수 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 LG생건, 액상분유 구더기 논란 일단락

## 식약처 "소비단계 혼입 추정" 제조·유통단계 문제 아니다

구더기 액상분유 논란에 휩싸인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의 베비언스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조·유통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식약처는 LG생활건강이 보고한 베비언스에 대해 이물 혼입 원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조·유통단계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단계에서 혼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제조단계 조사에서 내용물은 원료 배합공정부터 무균 충전공정까지 80~100mesh의 여과망을 통해 7~8차례의 여과공정을 거쳐 이물을 제어하고 있다. 식약처는 밀폐된 제조라인을 통해 이송, 제조되기 때문에 외부 오염물질이 혼입될 개연성이 낮다고 밝혔다.

또 유통단계 조사에서 물류창고 내 3단으로 된 진열대에 판매물품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월 1회 주기적인 방역과 매일 실시하는 위생점검으로 이물혼입이나 벌레가 생길 개연성은 희박했다고 덧붙였다.

소비단계 조사에서는 소비자가 지난달 1일 제품을 구입한 후 집안 거실 내 책장에 박스채 보관했음을 확인했다. 소비자가 말레이시아 해외여행(6월29일~7월3일) 중 이달 1일 수유 후에 뚜껑에서 살아있는 애벌레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으나 지역적 한계가 있어 당시의 소비환경 조사는 불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와 같은 조사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의뢰한 결과 발견된 이물은 초파리과의 유충으로 추정되며 134℃ 이상 온도에서 35초간 멸균 시 파리목 유충과 알은 단백질변성, 효소 불활성 등으로 치사한다고 설명했다.

또 벌레의 특성상 제조·유통단계에서 초파리가 산란했다면 구입 후 15일 이내에 성충으로 발견됐어야 하므로 소비단계 혼입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정은미 기자

# 간편조리 냉면 '나트륨 덩어리'

시중 간편조리식 냉장식품 냉면의 1인분 기준 나트륨이 일일 권장섭취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풀무원·CJ제일제당 프레시안·오뚜기 등 12개 냉면제품의 1인분 기준(면·육수 포함 물냉면 425~500g, 비빔냉면 148~267g) 나트륨 함유량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하루섭취량인 2000mg의 최소 48%에서 최대 109%였다. 비빔냉면보다는 물냉면 나트륨 함유량이 더 많았다. 나트륨이 가장 많은 냉면은 풀무원의 생가득 매콤한 평양물냉면(480g)으로 2180mg에 달했고, CJ제일제당 프레시안의 매콤 시원한 동치미 물냉면(429g)도 2090mg로 하루 권장 섭취량을 초과했다.

프레시안 동치미물냉면(454g·1940mg), 풀무원 생가득 평양물냉면(465g·1천890mg), 프레시안 평안도식 동치미 물냉면(484g·1천890mg)도 하루 권장섭취량의 90%를 웃돌았다. 또 오뚜기 면사랑 순메밀물냉면(480g·1천790mg)과 면사랑 김장동치미 평양물냉면(500g·1천780mg)에도 나트륨이 상당했다.

반면 프레시안 함흥비빔냉면(하루 권장섭취량의 48%·230g)은 나트륨량이 950mg으로 가장 적었고 라면처럼 조리해 먹는 농심 태풍냉면 1인분(148g)의 나트륨 함유량은 1790mg(하루 권장섭취량의 90%)이었고, 둥지냉면(500g)도 1780mg(89%)에 달했다.

/김수정 기자 ksj0215@





페르노리카코리아는 2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더 라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1도의 위스키 베이스의 스피릿 드링크 '에끌라 바이 임페리얼'을 선보였다. /페르노리카코리아 제공

# '저도주'로 악재 한번에 턴다

## 페르노리카 코리아 '에끌라 바이 임페리얼' 출시

국내 2위의 위스키 수입업체인 페르노리카코리아가 31도 '에끌라 바이 임페리얼(ECLAT BY IMPERIAL)'로 저도주 열풍에 합류했다. 이 제품으로 38일간의 파업으로 인한 영업 부진을 털고 저도주 위스키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겠다는 각오다.

페르노리카는 2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더 라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1도 위스키 베이스의 스피릿 드링크 '에끌라 바이 임페리얼'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최근 주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여성층을 타깃으로 한다. 알코올 도수도 통상 40도가 넘는 위스키 대신 31도에 맞추고 스피릿 드링크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로 출시했다. 출고 가격은 450ml에 3만6300원이다.

맛은 임페리얼의 부러운 풍미를 살리면서도 '여성의 과일'이라고 불리는 석류향을 가미해 산뜻하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패키지는 부드러운 곡선형 보틀과 실버 캡으로 당당한 여성의 시크한 느낌을 표현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페르노리카 관계자는 "에끌라 바이 임페리얼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정성·정량 조사를 진행한 결과 여성 소비자들이 원하는 라이트함과 산뜻함을 즐기기에 최적화된 도수는 31도라는 결론을 내리고 새로운 카테고리 주류를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은미 기자

# 코카콜라 '3기 그린리더 빗물학교' 개교





코카콜라는 환경재단과 함께하는 '코카콜라 그린리더 빗물학교' 3기 개교식을 지난 21일 서울 관악구 곡초등학교에서 가졌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3년 첫 선을 보인 '코카콜라 그린리더 빗물학교'는 학교 내 2톤 규모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해 직접 빗물을 모으고 조경·소방·청소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프로그램이다. 매해 3개교를 선정해왔으며 올해 3기로는 난곡초등학교, 서교초등학교, 월천초등학교가 참여하게 됐다.

# 천삼 함유 '홍이장군 더프리미엄 2단계' 출시



KGC인삼공사(대표 김준기)는 뿌리삼 중 최고 등급인 천삼을 함유한 어린이 건강기능식품 '홍이장군 더프리미엄 2단계'를 22일 출시했다. 가격은 30포에 20만원이다.

이 제품은 어린이 건강기능식품인 '홍이장군'에 전체 홍삼 중 상위 0.5%만 생산되는 '천삼'이 함유된 프리미엄 어린이 건강기능식품이다. '천삼'은 홍삼내부의 조직이 치밀하고 단단해 맛이 부드럽고 풍미가 우수한 점이 특징이다. 골드컬러 패키지 및 전용 쇼핑백으로 프리미엄 제품의 차별성을 강화하고 동화책 형태의 제품 설명서와 색칠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 맑은물리조트, 힐링 안성맞춤

## 야외 풀사이드 수영장
## 10㎞ 스릴만점 레프팅
## 여름철 더위사냥 제격


맑은물리조트 수영장.

경춘 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 강남에서 강원도 인제까지 150㎞, 불과 1시간30분~2시간이면 도착가능한 맑은물 리조트에는 초록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

푹푹 찌는 태양을 손쉽게 가리는 울창한 신록과 콸콸콸 흐르는 내린천의 청명한 물소리를 듣는 순간 도시의 답답함에 찌들었던 가슴이 탁 트일 것이다. 천혜의 자연환경 속에서 1만평의 넓은 부지에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자리잡고 있는 맑은물 리조트의 41개 모든 객실은 친환경 조경설계로 만들어졌다. 특히 통유리로 된 커다란 창문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산과 내린천의 절경은 인상적이다.

무엇보다도 맑은물 리조트는 모든 객실에 지하 150m에서 끌어올린 청정 1급 암반수가 제공된다. 이는 주변리조트에선 유일하게 수질검사를 획득했고 미네랄이 풍부하기로 유명해 객실 수돗물을 그냥 마셔도 건강에 아주 좋다.

올 여름 휴가에는 시원한 천연 암반수로 정적이면서 역동적인 물놀이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물놀이의 명소, 맑은물 리조트에서 이 불볕더위를 한방에 날려버리자.

**◆ 수영장**

리조트 중앙 센터의 야외 풀사이드 수영장은 안전한 가족 물놀이에 최고이다. 푸르른 산자락을 따라 시원하게 뻗어 흐르는 내린천을 바라보며 즐기는 물놀이는 서울의 여느 호텔 수영장과는 견줄 수 없는 맑은물 리조트만의 매력 포인트이다. 거기다 맑은물 리조트는 내린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한여름에도 시원하고 모기가 없다.

**◆ 낚시**

낚시는 휴식이자 운동이자 인생이다. 낚시의 참맛을 느끼고 싶다면 강력히 내린천 낚시를 추천한다. 보기만 해도 숨이 탁 트이는 산 바로 아래 내린천에서의 낚시는 짜릿한 '손맛'에 중독이 될만큼 물고기가 많기로 유명하다. 쉼 없이 흐르는 내린천의 청명한 물길 속에 튀어 오르는 수많은 물고기들을 견지낚시, 플라이낚시, 대낚시 등으로 맘껏 건져올릴 수 있다. 여름철 맑은물 리조트 앞 내린천에서는 아이들이 책에서만 볼 수 있었던 1급수 토종물고기인 쏘가리, 눈치, 쉬리, 빠가사리, 꺽지 등 다양한 민물 고기들이 서식하고 있다.

**◆ 레프팅**

어디 이뿐인가? 보다 익사이팅한 물놀이를 원한다면, 웅장하기 그지없는 기암괴석들 사이로 굽이치는 물살을 힘찬 구호에 맞춰 헤쳐나가는 스릴만점 레프팅을 즐겨보자. 천혜의 자연경관과 풍부한 수량을 동반한 빠른 유속을 자랑하는 내린천 구간은 S자형 계곡과 수직하강이 많아 급류타기를 하기에 최고다. 리조트 바로 앞에서 출발해 근처 원대교까지 가는 10㎞코스가 단연 인기이며, 시간은 약 2시간~2시간 반이 소요된다

**◆ 캠핑장**

이른 아침 리조트 앞 내린천에는 흐르는 강을 따라 물안개가 층층히 피어오른다. 물안개 속을 거니노라면 아스라한 실루엣의 산자락을 배경으로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착각에 자연이 제 자신의 일부가 된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 리조트 주변 추천 여행지**

강원도 인제 여행의 가장 큰 장점은 계곡과 바닷가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이다. 승용차를 이용해 가까이 있는 한계령을 넘어서면 양양, 속초, 주문진 등 동해 바다가 멀지 않다. 한 번의 여행으로 가족과 함께 계곡과 바닷가를 모두 체험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 외에 방태산, 곰배령, 전봉산, 설악산을 비롯 시골사람들만이 아는 황소,은골(각질뜯어먹는 이름모를 물고기), 검은소, 진동계곡 등 발길만 닿으면 자연생태계가 고스란히 보존된 곳이 넘쳐나서 어느 한 곳을 선택하기에 고민스러울 정도이다.

/최치선 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 이화의료원 "뇌건강 모든 것 알려드려요"

## 내달 5일 뇌전증 건강강좌



이대 목동병원은 '세계뇌의 날(7월 22일)'을 기념해 뇌전증 건강강좌를 연다.

이대목동병원 신경과는 한국유씨비제약 후원으로 뇌전증(Epilepsy, 腦電症) 환자들 가운데 여름 방학을 맞은 학생들과 보호자를 초청, 건강강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오는 8월 5일 오후 1시 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건강강좌는 뇌전증 환자의 치료 뿐 아니라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침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뇌전증은 예전에는 간질이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이후 잘못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자 개명됐으며 비정상적인 뇌신경 세포로부터 전류가 형성돼 대뇌의 기능을 잠시 혼란시키는 병을 말한다.

이번 건강강좌에서는 ▲뇌전증이란 무엇인가(이향운 신경과 교수·사진) ▲소아청소년의 뇌전증(조안나 소아청소년과 교수) 등의 강연이 진행되며 질의응답도 이어진다.

문의 : 이대목동병원 신경과(02-2650-5953), 참가비 : 무료

/최치선 기자

# 성신여대, 창업맞춤형사업화센터 개소

## "산학협력 선도모델 구축"




성신여대(총장 심화진)가 21일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센터'의 개소식을 열었다.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이 지난 달 중소기업청이 실시하는 '2015년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된데 이은 것이다. 성신여대는 향후 3년에 걸쳐 최대 총 37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번 행사는 '여성 CEO 창업을 선도하는 대학', '국내 최대 여대생 창업자를 배출하는 대학', '성북구청과 함께 강북지역의 청년 창업거점 대학'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다.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은 개회사를 통해 "성신여대가 여대 최초로 창업지원 주관기관에 선정돼 뜻 깊은 개소식을 열어 기쁘다"며 "성신여대는 산학협력의 선도 모델 대학으로서 대학과 산업체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이전부터 구청과의 '스마트 앱 창작터' 협업 및 자문, 전국최초 민간기관 생활임금제 MOU 등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해 온 성신여대가 이번에도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다"고 말했다.

또 "지원센터가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마음껏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마당으로 발전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복현명 기자 hmbok@

# 강강술래 "드신만큼 덤으로 싸드려요"

## 국민행복 프로젝트
## 주문량만큼 무료포장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가족외식이나 단체모임, 직장회식을 알뜰하게 치를 수 있도록 매장에서 주문한 양만큼 무료 포장해주는 파격 이벤트를 벌인다.

늘봄농원점(031-965-2300)은 소고기류(술래·강강·왕양념갈비, 한우스페셜, 한우모둠구이)를 시키면 한우양념불고기를, 돼지고기류(한돈·돼지양념)를 시키면 돼지양념구이를 주문량만큼 나갈때 포장해 준다.(해피아워 제외)

상계점(02-935-9233)은 소고기류(술래·강강·왕양념갈비, 한우스페셜, 한우모둠구이)를 시키면 한우양념불고기를, 돼지고기류(한돈·돼지양념)를 시키면 돼지양념구이를 준다.

시흥점(02-808-1888)은 소고기류(술래·강강양념, 한우갈비살)를 시키면 한우양념불고기를, 돼지고기류(한돈·돼지양념, 생고기한판)를 시키면 돼지양념구이를 주문 양만큼 나갈 때 포장해 준다.

신림점(02-886-9233)도 소고기류(술래·강강양념, 왕양념·본갈비, 한우스페셜, 한우모듬구이)를 시키면 한우양념불고기를 포장 증정한다.

늘봄농원점은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다른 매장은 7월31일까지 주말을 포함해 행사를 진행하며 점심 특선은 제외된다.

한편 여의도점(02-785-6692)은 주중(월~금) 오후1시부터4시까지 술래양념구이정식 2인분 주문시 술래양념구이 3대를, 한우광양불고기정식 2인분주문시 한우불고기 150g을 덤으로 준다.

/박상길 기자 sweatsk@

# 서울여대, 올 고교교육 정상화기여대학

## 11억 5000만원 예산 배정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전혜정)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실시한 2015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총 112개 4년제 대학이 신청해 60개 대학이 선발된 이번 사업에서 서울여대는 11억5000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국내 여대 중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형 규모 대학 중 가장 높은 사업비를 확보한 서울여대는 고교교육을 충실히 반영해 학생부종합전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우수대학으로 인정받았다.

서울여대는 2016학년도 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전체 모집정원의 48% 이상을 선발하며 학생부위주전형을 강화했다.

또한 지원자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는 등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고자 노력했다.

이번 선정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대입 전형 개선, 고교-대학 연계 활동지속, 입학생 추수 교육지원 등 학교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복현명 기자

## star bag

### '용팔이' 첫 촬영 돌입



배우 **김태희**가 SBS 새 수목드라마 '용팔이'의 첫 촬영에 들어갔다. 지난 17일 진행된 첫 촬영에서 김태희는 큰 눈망울에 가득 고인 눈물과 황망함이 번진 얼굴로 연기에 임했다. '용팔이'는 '가면' 후속으로 다음달 5일 첫 방송 예정이다.



### 두 번째 단독 콘서트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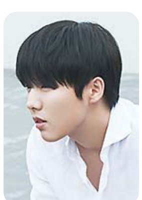
걸그룹 **에이핑크**가 두 번째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 소속사 에이큐브엔터테인먼트는 "에이핑크가 '핑크 아일랜드(PINK ISLAND)'라는 타이틀로 다음달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두 번째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2일 전했다.

### 영화 '포졸' 주연 캐스팅



배우 **정해인**이 영화 '포졸'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 정해인은 극중 무술의 달인인 김호 역을 맡아 액션 연기에 도전한다. '포졸'은 정해인 외에도 조재윤, 홍수아, 이원종, 손병호, 박철민 등이 출연하며 오는 27일 크랭크인한다.

### 7kg 감량하고 청년으로



컴백을 앞둔 가수 **유승우**가 7kg 체중감량으로 소년의 이미지를 벗고 청년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유승우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21일 유승우의 공식 트위터를 통해 3번째 싱글 앨범 이미지를 공개했다. 오는 29일 발매 예정이다.

### 데뷔 싱글 '사랑…' 발표



가수 **배수정**이 22일 정오 3년 만의 데뷔 싱글 '사랑할거예요'를 발표했다. 이별 후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며 후회하는 한 여자의 이야기를 담은 R&B 발라드 곡이다. 배수정은 '위대한 탄생2' 출연 당시 뛰어난 실력과 미모, 남다른 이력으로 화제를 모았다.



영화 '암살' **전지현**

시작은 '도둑들'이었다. 스타 이미지가 강했던 전지현(33)은 '도둑들'의 예니콜 역을 통해 배우로 우뚝 설 수 있었다. 발랄하면서도 솔직한 예니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지현의 매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배우로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였다.

# 드레스 입고 총격전, 가장 인상깊어요

전지현은 곧바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베를린'에서는 예니콜과 정반대의 성격인 련정희를 연기했다. 우수에 가득 찬 눈빛에는 그동안 보여준 적 없었던 깊은 감정이 있었다. 그리고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가 찾아왔다. 전지현의 연기 인생이 새로운 정점을 찍는 순간이었다.

전지현의 행보는 쉼 없이 이어졌다. '별에서 온 그대' 이전에 출연을 이미 결심했던 '암살'이었다. '도둑들'의 최동훈 감독과 다시 만난 작품으로 1933년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한 친일파 암살 작전을 그리고 있다. 전지현은 독립군 저격수인 안옥윤을 연기했다. 속사포(조진웅), 황덕삼(최덕문)을 이끄는 대장이다.

한국영화에서 흔치 않은 여성 캐릭터 중심의 작품이다. 여배우라면 누구나 탐이 날 수밖에 없다. 전지현은 "자랑스러웠고 기분이 좋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그러나 여성 캐릭터가 중심이 된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역할을 위해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전지현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역사적 격동기인 1930년대를 살았던 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안옥윤의 임무를 생각하면 할수록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녀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100회차 촬영인데 안옥윤이 나오는 장면이 80회차나 돼요. 그래서 오히려 안옥윤의 사연을 숨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런 사연이 있어'라고 드러내놓고 연기하면 보는 사람이 숨 막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관객에게 편안하게 다가가고 싶었어요."

> 1930년대 독립군 저격수 연기
> 관객에 편하게 다가가려 노력
>
> 연기할때는 배고픈 것도 몰라
> 그런 집중력이 연기 매력이죠

영화 속에서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는 안옥윤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친일파를 상대로 총격전을 벌이는 신이다. 전지현이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장면이다. "여성성이 부각되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피가 낭자한 총격전을 벌이죠. 이것만큼 쿨한 게 어디 있을까 싶었어요. 잘 해내고 싶었고요."

'도둑들'을 시작으로 '암살'에 이르는 전지현의 행보를 보면 유난히 눈에 띄는 것이 있다. 바로 편안함이다. 결혼 이후 오히려 더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하는 모습에서 예전과 같은 신비주의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것은 전지현 스스로도 느끼는 변화이기도 하다.

전지현은 "살면서 집중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는데 연기할 때만큼은 배고픈 것도 아픈 것도 까먹고 집중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런 집중력이 연기를 더욱 재미있고 편안하게 만든다고도 했다. 처음 배우 일을 시작했을 때는 "나는 다르다"는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봤다. 그러나 지금은 "카메라 앞에서만 특별하면 되지 평소에 특별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여전히 전지현의 미래가 궁금한 이유다.

"저에게는 제 인생이 먼저에요. 그런데 지금 제 삶을 보면 배우로 산 세월이 더 길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연기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어요. 배우로 살아온, 지울 수 없는 제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배우로 살아야 할 것 같아요(웃음)."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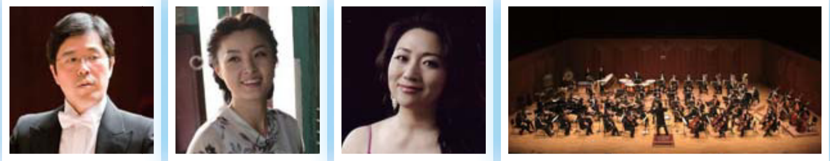



사진/손진영 기자 son@

# 광복 70주년 기념음악회

# 아리랑 Festival

*가슴으로 부르는 삶의 소리*
*아리랑을 찾아서*



지휘 성기선 국악인 오정해 소프라노 오미선 연주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2015. 8. 14(FRI) 8PM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주최 사단법인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Millennium Symphony Orchestra

후원 DASAN INC. CO., LTD. textile manufacturers for apparel and home furnishings fabrics. (주)다산아이엔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메세나협회 Korea Mecenat Association

예매처 SAC싹Ticket 02–580–1300 인터파크 티켓1544–1555 AUCTION 티켓 1566–1369 YES24.COM 공연1544–6399

티켓 R 7만원 S 5만원 A 3만원 B 2만원 (초 · 중 · 고등학생 50%할인) 공연문의 02–6292–9370

# 뻔뻔한 재벌 향한 통쾌한 주먹

## 화물노동자 자살 시도 둘러싼 재벌과 경찰 대결 류승완 감독의 장기 녹아든 새로운 대표작품

film review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베테랑

영화와 현실은 다르다. 제 아무리 현실적인 이야기를 다룬다 해도 그것은 현실을 반영한 영화일 뿐 현실 그 자체가 될 수 없다.

류승완 감독의 신작 '베테랑'도 마찬가지다. 영화는 재벌과 경찰의 대결을 그린다.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다. 왜냐면 우리는 재벌들이 쉽게 법과 정의를 무시한다는 사실도, 법과 정의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재벌 앞에서는 쉽게 힘을 쓰지 못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베테랑'은 관객에게 잠시나마 희망을 느끼게 만든다. 123분의 러닝타임 동안 펼쳐지는 광역수사대 형사 서도철(황정민)과 재벌 3세 조태오(유아인)의 숨 막히는 대결을 보고 있노라면 류승완 감독의 말처럼 현실에서도 저런 형사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막연하게나마 생긴다.

영화의 본격적인 이야기는 한 화물노동자의 투신자살 시도에서 시작한다. 평소 이 노동자와 친분이 있었던 서도철은 아주 단순한 이유로 사건 수사에 뛰어든다. 그것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아내와 아이를 둔 이 가장이 왜 죽음을 선택했는지를 알고 싶다는 순전히 인간적인 이유에서다.

사건의 이면에는 재벌 3세 조태오가 있다. 재벌의 특권 의식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자본이라는 권력의 힘에 취한 조태오에게 법과 정의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에 다름 아니다. 서도철과 조태오의 대결은 그래서 단순한 경찰과 재벌의 대결이 아니다. 그 속에는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계급 관계가 담겨 있다. '베테랑'이 관객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지점이다.



류승완 감독의 팬이라면 전작들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피도 눈물도 없이' '주먹이 운다' '짝패' '부당거래' 등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들이 영화 곳곳에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이 전작의 답습이나 복제에 머물지는 않다는 점이다. 류승완 감독은 자신의 장기를 변주하고 발전시켜 '베테랑'에 녹여낸다. 그런 점에서 '베테랑'은 류승완 감독의 새로운 대표작으로 칭할만 하다.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이야기로 유쾌함과 통쾌함을 전하던 영화는 그러나 엔딩에서만큼은 현실적인 태도를 견지한다. 영화의 정서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깔끔한 마무리다. '베테랑'의 주제는 명확하다. "사람은 신경도 쓰지 않는" 세상을 향해 "쪽팔리게 살지는 말자"는 것이다. 그 간결한 메시지가 통쾌함을 전한다. 15세 이상 관람가. 8월 5일 개봉.

## TV 하이라이트

### ◆ KBS2 '해피투게더'

오후 11시 10분

#### 잉꼬부부들의 야식 대결

여름 스페셜 야간매점 3탄인 '부부매점' 특집이다. 연예계 대표 잉꼬부부 노사연-이무송과 장윤정-도경완, 스타 셰프 레이먼 킴과 김지우 부부가 출연해 입담을 펼친다. 레이먼 킴과 김지우 부부는 신혼 부부다운 과감한 스킨십과 토크로 20년차 부부 노사연-이무송의 눈총을 받는다. 장윤정은 자신과 닮은 남편 도경완의 철부지 같은 모습을 질타한다.





남편들은 '아내를 위한 보양식'이라는 타이틀로 야식 대결을 펼친다.

### ◆ JTBC '썰전'

오후 11시

'대륙의 실수'라는 별명까지 얻으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국 가전 브랜드 '샤오미'에 대해 분석한다. 중국 경제를 주름 잡는 공룡의 위치에 오르기까지의 성공요인을 밝힌다.



### ◆ SBS '자기야-백년손님'

오후 11시 15분

보이스 피싱에 훌륭하게 대처해 화제가 된 이춘자 여사가 공익광고 모델로 발탁된다. 생애 최초로 광고 모델에 도전하게 된 이춘자 여사는 리얼한 연기로 제작진을 당황시킨다.



### ◆ JTBC '님과함께 시즌2'

오후 9시40분

장서희는 남편 윤건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 힐링 타임으로 밀착 요가를 시도한다. 마사지에 이어 과감한 스킨십을 유발하는 부부요가로 두 사람은 점차 가까워진다. /정리=하희철기자 bbuheng@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3일 (목)

| 지상파 | KBS1 | KBS2 | MBC | SBS | EBS1 | EBS2 |
|---|---|---|---|---|---|---|
| 18시 | 00 6시 내고향<br>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 00 KBS 글로벌 24<br>30 2TV 저녁 생생정보 | 10 생방송 오늘 저녁 | 00 생방송 투데이 | 00 톡! 톡! 보니 하니 1 (2889회)<br>05 코코몽 3<br>25 꼬마 철학자 휴고<br>45 스쿨랜드 | 00 하늘 놀이터 (재)<br>25 Real Fun World (재)<br>30 출동! 슈퍼윙스(영어·한국어) (재)<br>50 Real Fun World2 (재)<br>55 시계마을 티키톡!(영어·한국어) (재) |
| 19시 | 00 KBS 뉴스 7<br>30 한국인의 밥상 | 50 오늘부터 사랑해 (76회) | 15 위대한 조강지처 (29회)<br>55 MBC 뉴스데스크 | 20 돌아온 황금복 (33회) | 00 돌진! 슈퍼가정부와 위험한 동네<br>30 EBS 뉴스<br>50 청춘! 세계도전기 | 25 내 친구 아서(영어) (재)<br>35 Real Fun World3 (재)<br>40 내 친구 아서(한국어) (재)<br>50 두키 탐험대(영어) |
| 20시 | 25 가족을 지켜라 (53회) | 30 반려 동물 극장 단짝<br>55 시간을 달리는 TV (3회) | 55 딱 너 같은 딸 (49회) | 20 SBS 8 뉴스<br>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 40 다큐 오늘<br>50 세계 테마 기행 | 00 Real Fun World4 (재)<br>10 두키 탐험대(한국어)<br>20 스쿨랜드<br>30 세계의 교육현장 (재) |
| 21시 | 00 KBS 뉴스 9 | | 30 리얼스토리 눈 | | 30 한국기행<br>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 00 다큐 오늘<br>10 EBS 스타 강사 특강 |
| 22시 | 00 명견만리<br>55 국민대합창 우리가 | 00 어셈블리 (4회) | 00 밤을 걷는 선비 (6회) | 00 가면 (18회) | 45 다문화 고부 열전 | 00 영화로 배우는 영어<br><내 남자친구의 결혼식> |
| 23시 | 00 KBS 뉴스라인<br>40 세계의 명문, 이튼스쿨 | 15 해피 투게더 | 15 경찰청 사람들 2015 | 15 자기야-백년손님 | 35 글로벌 가족정착기-한국에 산다 | |
| 24시 |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 55 스포츠 하이라이트 | 30 MBC 뉴스 24<br>5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 35 나이트라인 | 05 역사채널e (재)<br>10 EBS 스페이스 공감 (1143회) | 30 최고의 교사 (재) |

| 케이블 | JTBC | tvN | 올리브TV | 내셔널지오그래픽 | 채널CGV | 스포츠 |
|---|---|---|---|---|---|---|
| 18시 | 30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53회) (재) | 00 코미디 빅리그 (129회) (재) | 10 수요미식회 (25회) | | 20 사대명포 2 |  |
| 19시 | 55 JTBC 뉴스룸 | 30 오늘 뭐 먹지? | 30 오늘 뭐 먹지? (81·82회) | 00 나는 자연인이다 (15회) | | |
| 20시 | 50 JTBC 뉴스룸 | 40 진짜 공부비법 (3회) | 30 주문을 걸어 (2회) | 00 와일드 24: 남극 | 40 무비스토커 (3회) | |
| 21시 | 40 님과 함께 시즌2-최고의 사랑 (12회) | 40 한식대첩 3 (10회) | 30 한식대첩 3 (10회) | 00 <순간포착!위험한 동물들> (4회) | | ◆ 프로야구 (18:30)<br>넥센 vs LG (SPOTV+)<br>KIA vs 삼성 (MBC SPORTS+)<br>두산 vs SK (SKY SPORTS)<br>NC vs 롯데 (SBS SPORTS)<br>한화 vs KT (KBS N SPORTS) |
| 22시 | | | | 00 세계로 가는 아시아 헌터 (5회) | 00 주먹이 운다 | |
| 23시 | 00 썰전 (125회) | 00 가이드 (1회) | 00 한식대첩 3 우승자레시피 (10회)<br>20 오늘 뭐 먹지? (82회) | 00 프로그맨 4부 | | |
| 24시 | 20 마녀사냥 스페셜 (101회) | 20 집밥 백선생 (10회) (재) | 00 한식대첩 3 (10회) | 00 콜드 워터 골드 (9회) | 30 캐빈 인 더 우즈 | |

# 추신수, 亞 최초 메이저리그 사이클링 히트

## 강정호 '멀티히트' 8경기 연속 안타



22일 콜로라도 로키스와의 경기에서 추신수가 사이클링 히트를 완성한 뒤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AP=연합뉴스

타격 부진에 시달렸던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가 메이저리그에서 동양인 최초로 사이클링 히트를 기록했다.

추신수는 22일(한국시간)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쿠어스필드에서 열린 콜로라도 로키스와 원정경기에서 7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단타·2루타·3루타·홈런을 모두 쳤다. 이로써 메이저리그에서 개인통산 첫 사이클링 히트를 달성하면서 동양인 최초의 기록을 수립했다.

올시즌 메이저리그에서 나온 사이클링 히트는 추신수가 두 번째다. 아울러 텍사스 구단에서 사이클링 히트가 나온 것은 2013년 9월 23일 알렉스 리오스가 휴스턴 애스트로스를 상대로 기록한 이후 22개월 만이다.

추신수는 2회초 무사 1루에서 첫 타석에 나서 콜로라도 오른손 선발 카일 켄드릭의 시속 86마일(138㎞)짜리 초구 커터를 공략해 1타점 좌전 적시 2루타를 쳤다. 3-0으로 앞선 4회초에는 선두타자로 나와 켄드릭의 4구째 시속 88마일(142㎞)짜리 싱커를 잡아당겨 오른쪽 펜스를 넘기는 비거리 127m의 솔로포를 쳐냈다. 지난 2일 볼티모어 오리올스전 이후 20일 만의 홈런이자 시즌 12호다.

추신수의 다음 상대는 좌투수 요한 프란데였다. 올 시즌 좌투수를 상대했을 때 타율이 전날까지 0.153(111타수 17안타)에 불과할 만큼 약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프란데의 초구를 공략해 3루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이는 중전 적시타를 때렸다. 20~21일 이틀간 선발 출전 명단에서 빠졌던 서러움을 날려버리는 안타였다. 곧바로 시즌 2호 도루까지 성공했다.

4타수 3안타를 기록 중이던 추신수는 9회초 마지막 타석에서 대기록을 완성했다. 선두타자로 나서 좌완 투수인 렉스 브라더스로부터 중견수 키를 넘겨 펜스를 직접 맞고 튀어나오는 장타를 터뜨린 뒤 총알같이 베이스를 돌아 3루에 안착해 사이클링 히트를 완성했다. 5타수 4안타(1홈런) 3타점으로 시즌 타율도 0.226에서 0.235로 끌어올렸다. 텍사스는 추신수의 맹활약에 힘입어 콜로라도를 9-0으로 물리쳤다.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강정호(28)도 8경기 연속 안타 기록을 세웠다.

강정호는 같은날 캔자스시티 카우프먼 스타디움에서 열린 캔자스시티 로열스와의 원정경기에 5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장해 2루타 1개 포함 4타수 2안타 1득점을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278에서 0.282로 올랐다. 또한 20일 밀워키 브루어스전부터 3경기 연속 멀티히트가 이어졌다.

피츠버그는 8회 야수 실책이 겹치는 불운 끝에 3실점(2자책)해 1-3으로 패했다.

/하희철 기자 bbuheng@metroseoul.co.kr



# SK 최정 '완벽 부활'

## 최근 10경기 타율 0.364

프로야구 SK 와이번스의 최정(28·사진)이 부진을 털어내고 있다. 올시즌 삼성 라이온즈의 통합우승 5연패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SK 와이번스가 부진이 거듭되자 팀의 베테랑인 최정에게 비난의 여론이 형성된 바 있다.

최정은 한국 프로야구 최고 몸값을 자랑한다. 지난해 시즌 종료 후 소속팀 SK와 4년 86억원의 초대형 계약을 맺었다. 그동안 펼친 활약을 고려하면 그런 대우를 받을 만했다. 4월 초 4안타 2홈런을 몰아쳐 8타점으로 한 경기 최다 타점 타이기록(12번째)을 세웠을 때만 해도 '역시 최정'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손목, 허리, 종아리, 팔꿈치, 어깨 등에 연이어 부상이 오면서 4월에 0.339(62타수 21안타)에 이르던 타율은 5월에 0.170(53타수 9안타)으로 떨어졌다. 결국 5월 말 1군에서 강등돼 한 달 가까이 2군에서 뛰었다. 7월 들어 KT 위즈와의 두 경기(1~2일)에서도 7타수 무안타로 부진했다.

그러나 최정은 3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경기에서부터 실력 발휘를 시작했다. 3일부터 21일까지 최근 10경기 타율은 0.364(33타수 12안타)에 달한다. 특히 후반기 첫 경기인 21일 두산전에서 1회에 2점 홈런으로 득점의 물꼬를 터 팀을 승리로 이끈 점은 인상적이었다. 3루수로서의 수비에도 빈틈이 없었다.

후반기 대반전을 노리는 SK의 최근 10경기 승률은 0.667(6승 3패 1무)로 10개 구단 중 1위다. 최정의 부활과 함께 반등을 꾀할 수 있게 됐다. /하희철 기자

# KLPGA 상금 랭킹 1위 가린다

## 전인지·이정민, 하이트챔피언십 우승 경쟁
## 고진영·김효주·전미정·김하늘도 도전장


전인지


이정민

올해 US여자오픈 골프대회 우승자인 전인지(21·하이트진로)와 이정민(23·비씨카드)이 KLPGA 상금 랭킹 1위의 주인공을 가린다.

이들은 23일 경기도 여주 블루헤런 골프장(파72·6763야드)에서 개막하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제16회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총상금 8억원)에 출전한다. 하이트진로 챔피언십은 한국여자오픈, KLPGA 챔피언십, KB스타금융 챔피언십 등과 함께 KLPGA 투어 4대 메이저대회 가운데 하나다. 우승상금은 1억6000만원이다.

전인지는 현재 5억5924만원으로 KLPGA 상금 랭킹 1위다. 소속사 주최 대회에서 상금 랭킹 1위를 굳히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정민은 5억859만원으로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 두 사람은 이번 시즌 라이벌로서 US여자오픈도 함께 치렀다. 이정민은 전인지의 US여자오픈 우승을 지켜만 봐야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우승컵을 들어올려 명예 회복을 노리고 있다.

관건은 체력이다. 전인지는 13일 US여자오픈에서 우승하는 쾌거를 거둔 뒤 14일 귀국해 곧바로 16일부터 K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 출전했다. 결국 체력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최종라운드를 앞두고 기권했다. 나흘을 쉬고 다시 필드에 서게 되는 셈이다. 얼마나 컨디션을 회복했는지가 성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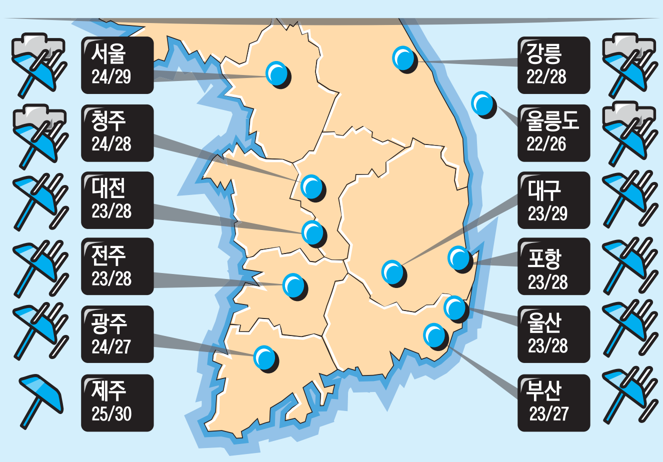
이정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번 시즌 대상 포인트와 평균타수 부문에서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체력 부담 때문에 지난주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컷 탈락했다. 국내 대회에서 컷 통과에 실패한 것은 지난해 5월 KG·이데일리 레이디스오픈 이후 1년2개월 만이었다. 반등의 기회를 맞이한 이정민으로서는 대회 우승으로 명예 회복과 동시에 상금 랭킹 1위도 넘보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각오다.

이외에도 올해 KLPGA 투어 상금 상위권에 포진한 3위 고진영(20·4억5862만원), 4위 조윤지(24·4억3952만원), 5위 박성현(22·3억4335만원), 6위 김민선(20·3억3041만원) 등도 총출동한다. 이들도 우승하면 상금 선두로 올라설 수 있다. /하희철 기자

# 날씨

7/23 목 일출시각 05:28 일몰시각 19:49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자외선지수 /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 | | | | | | | | |
|---|---|---|---|---|---|---|---|---|
| | | 7 | 9 | | 1 | | | |
| 3 | 1 | | | | | | | 5 |
| 8 | 4 | | 5 | | | | 3 | |
| 4 | | | | 7 | 3 | 2 | 9 | |
| | | | | 9 | | | | |
| | 9 | 3 | 2 | 5 | | | | 4 |
| | 8 | | | | 5 | | 2 | 3 |
| 6 | | | | | | | 1 | 8 |
| | | | 7 | | 4 | 5 | | |

| | | | | | | | | |
|---|---|---|---|---|---|---|---|---|
| 9 | 2 | | 8 | | 5 | 6 | | 4 |
| | | | | 6 | | 9 | | |
| | 6 | | 7 | | | | | 8 |
| | | 9 | | 5 | | | 1 | |
| 2 | | | 3 | | 7 | | | 5 |
| | 8 | | | 2 | | 7 | | |
| 4 | | | | | 1 | | 6 | |
| | | 1 | | 3 | | | | |
| 6 | | 3 | 2 | | 4 | | 8 | 1 |

### 스도쿠 정답

| | | | | | | | | |
|---|---|---|---|---|---|---|---|---|
| 5 | 6 | 7 | 9 | 3 | 1 | 8 | 4 | 2 |
| 3 | 1 | 9 | 8 | 4 | 2 | 6 | 7 | 5 |
| 8 | 4 | 2 | 5 | 6 | 7 | 9 | 3 | 1 |
| 4 | 5 | 8 | 1 | 7 | 3 | 2 | 9 | 6 |
| 1 | 2 | 6 | 4 | 9 | 8 | 3 | 5 | 7 |
| 7 | 9 | 3 | 2 | 5 | 6 | 1 | 8 | 4 |
| 9 | 8 | 4 | 6 | 1 | 5 | 7 | 2 | 3 |
| 6 | 7 | 5 | 3 | 2 | 9 | 4 | 1 | 8 |
| 2 | 3 | 1 | 7 | 8 | 4 | 5 | 9 | 6 |

| | | | | | | | | |
|---|---|---|---|---|---|---|---|---|
| 9 | 2 | 7 | 8 | 1 | 5 | 6 | 3 | 4 |
| 1 | 3 | 8 | 4 | 6 | 2 | 9 | 5 | 7 |
| 5 | 6 | 4 | 7 | 9 | 3 | 1 | 2 | 8 |
| 7 | 4 | 9 | 6 | 5 | 8 | 2 | 1 | 3 |
| 2 | 1 | 6 | 3 | 4 | 7 | 8 | 9 | 5 |
| 3 | 8 | 5 | 1 | 2 | 6 | 7 | 4 | 9 |
| 4 | 7 | 2 | 5 | 8 | 1 | 3 | 9 | 6 |
| 8 | 5 | 1 | 9 | 3 | 6 | 4 | 7 | 2 |
| 6 | 9 | 3 | 2 | 7 | 4 | 5 | 8 | 1 |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 National Pension 336.1 Million Dollars Loss, Who is Responsible?

<국민연금 3일만에 손실액 3361억원 넘어, 국민돈 누가 책임지나>

After the merging of Samsung C&T and Cheil Fabric, the National Pension went through great losses, which effects the citizens' retirement savings.

And this is deriving resentment from many.

The merging was continued regardless of strong opposition and also, there was 336.1 million dollars loss within three days. At this point, The head of the National Pension Corporation's Fund Management Headquarter, Hong Wan Sun is on the verge of coming down from his position.

He stated that there was a discussion regarding why National Pension Corporation's Fund Management Headquarter did not request a consideration on review.

/파고다어학원 Chris Kim(김윤관) 강사




21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한 시민이 국민연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22만명에 육박, 이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사상 최고치다. /연합뉴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에서 삼성 편을 든 국민연금이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국민의 노후저축에 손실을 끼치고 있다는 원망을 받고 있다.

'합병에 반대하라'는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의 권고를 무릅쓰고 합병에 찬성했지만, 합병 성사 후 연일 주가가 폭락해 3일만에 3361억원의 평가손실을 입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홍완선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자리마저 내놓을 위기에 처했다.

의결권위원회 관계자는 "삼성물산 합병 건과 관련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왜 (의결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절차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 15년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할 수 있을까요? 가족간 화합 곤란… 남자가 안 나서면 헤어져야

멋진 Gril 여자 82년 10월 29일 양력 9시50분
남자 82년 12월 21일 양력 6시45분

**Q** 고 3때 우연히 만나 15년간 연인으로 지내온 친구입니다. 긴 세월이다 보니 중간 중간 헤어진 기간도 있었고 그 기간에 서로 그리워하다 다시 연락해 연인이 되기를 반복했어요. 결혼얘기를 하지만 그 친구는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홀어머니 아래 외아들로 살아온 이 친구가 제 인연일까요? 결혼해 잘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서비스강사'가 되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교육도 받고 자격증도 따고 매장에서 현장을 익히며 강사를 준비했지만 이것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제 사주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 궁합을 통해서 상대를 이해하면 자신의 생각이나 행동이 명백해지며 자신의 정체감이나 처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지요. 특히 잘 대처할 수 있는 미래를 짚어 볼 수 있기에 여러 요건을 집어보지만 좋은 궁합이 나오기는 매우 어렵고 희소합니다. 서로에게 복이 되는지 흉이 되는지를 판가름 하는 정도에 그치게 되므로 좋다고 한 궁합이 나중에 이혼을 하기도 하고 나쁘다고 한 궁합이 해로를 합니다. 상담에서 좋지 않는 이유를 살펴서 서로 맞추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고 좋은 기운이 있다면 이를 통해 상대방의 기운을 상생시켜 주면서 사는 법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사귀어 온 커플이라면 상대를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속이며 결혼이라는 것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혼 후 예상 못했던 일이 생겨 결별을 합니다. 그 보다도 근본적으로 결혼은 성사되기 어렵지만 그래도 설명을 해본다면 여자사주에서 태어난 날인 생일지(生日支)가 신약한데 칠살(七殺)이었고 식신(食傷:남자를 제어 함)이 없으면 착한 남편을 만난다 할지라도 돌변되어 남편의 흉포함을 제어 못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원진살이 있으면 막상 헤어지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며 사는 불쌍한 처지가 될 수 있고 월지(月支:태어난 달)에서 극을 하고 있으니 가족 간에 화합이 어려워 서로가 곤란합니다. 사주에서 정재(正財:부인을 나타냄)가 승발하지 못하면 남자 그늘에서 고통을 당하거나 건강상 문제로 고생을 한다고 했는데 남자분이 결혼 의사가 없다면 외롭고 아쉬움이 남아도 헤어져야 하며 자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지면상 상담신청을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 신점[神占] 운세

7월 23일 (음 6월 8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쥐: 48년생 화술이 뛰어나니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60년생 조바심이 날 수 있습니다. 72년생 어려움을 어떻게 벗어나는가가 중요합니다. 84년생 먼 여행보다는 가까운 여행이 길합니다.

소: 49년생 한가지에 매진하세요. 61년생 두 가지 소원은 이루기 어렵겠습니다. 73년생 도모하는 일은 빨리 시행하세요. 85년생 결실을 얻게 됩니다.

호랑이: 50년생 주변인과 어울리기 힘듭니다. 62년생 연인과 다툼수나 이별수 있겠습니다. 74년생 건강이 많이 악화됩니다. 86년생 어려운 시험에 합격의 영광을 받게 됩니다.

토끼: 51년생 기대도 안했던 재물이 들어오게 될것입니다. 63년생 먼 여행보다는 가까운 여행이 길합니다. 75년생 해외 여행이 꿈인데 몸이 따라 주지 않습니다. 87년생 생활에 고통 받습니다.

용: 52년생 오랜 친구가 나를 떠납니다. 64년생 가정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시기입니다. 76년생 성에 차지 않더라도 당분간 만족하고 자중하세요. 88년생 가족들 사이에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뱀: 53년생 어려움에 슬기롭게 도전합니다. 65년생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전진해야 합니다. 77년생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하세요. 89년생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곧 호전됩니다.

말: 54년생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66년생 좀 더 치성을 드림이 좋겠습니다. 78년생 남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90년생 금전상으로 약간의 손실이 있겠습니다.

양: 55년생 가세는 확장되고 만복이 찾아옵니다. 67년생 가끔씩은 남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어보세요. 79년생 시기가 좋으니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91년생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원숭이: 56년생 동남방이 길방입니다. 68년생 재물은 크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80년생 오랜 친구가 배신합니다. 92년생 기다리다 시간 놓친격이니 너무 많은 조심성은 해가 됩니다.

닭: 57년생 건강은 건강할때 관리해야 할것입니다. 69년생 무난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81년생 동쪽에서 귀한 손님이 옵니다. 93년생 기회란 늘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개: 58년생 미루고 있었던 일이 있었다면 즉시 추진하세요. 70년생 기대도 안했던 재물이 들어오게 될것입니다. 82년생 애정운이 좋습니다. 94년생 어려운 시험에 합격의 영광을 받게 됩니다.

돼지: 59년생 크게 손해보는 일이 있을수 있습니다. 71년생 양다리는 절대로 안됩니다. 83년생 늦바람을 조심하세요. 95년생 이성문제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 뉴호라이즌스 호-명왕성-로웰 그리고 한국



뉴스룸에서
김 민 준
<문화스포츠부 부장>

2006년 1월 지구를 떠난 뉴호라이즌스 호가 9년 6개월이 넘는 긴 시간을 여행하며 명왕성을 지나 외행성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명왕성은 지구로부터 빛으로 4시간30분 정도 걸리는 48억여㎞가 떨어진 미지의 행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뉴호라이즌스 호는 얼마전 명왕성 상공 1만2500km를 근접 통과하면서 지구에 하트 모양의 사진을 전송시켜 세계인을 감동시켰습니다. 이 사진으로 명왕성에 얼음산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얼음산 북쪽으로 일산화탄소가 얼어붙은 얼음 평원의 존재도 확인했습니다. 10년 전 제작된 우주선이 정확하게 예정된 시간에 명왕성을 지나 지구에 정보를 보낼 수 있었다는 사실이 경이롭습니다.

명왕성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와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정확하게 '화성 운하 존재설'을 주장해서 유명해졌던 미국의 천문학자 퍼시벌 로웰(1855~1916)이 한국과 특별한 인연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조선이 1882년 미국과 수호조약을 체결하고, 1883년 최초의 미국 공사가 부임해오자 고종은 그해 7월 민영익·홍영식 등 11명으로 구성된 견미사절단을 워싱턴으로 보냅니다. 사절단 일행의 고문이 되어 미국으로 안내한 사람이 당시 일본에 머물러 활동하던 로웰이었습니다.

고종은 로웰의 공로를 치하하며 그를 조선으로 초청했고, 로웰은 두 달간 조선을 여행하고 '조용한 아침의 땅-조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후 로웰은 미국으로 돌아가 천문학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1894년에는 밤하늘의 별이 가장 선명히 보이는 애리조나주 플래그스태프에 로웰 천문대를 세웠습니다. 로웰은 이 천문대를 세운 후 태양계의 가장 바깥쪽 행성으로 알려졌던 해왕성 밖에 또 하나의 행성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아쉽게도 로웰은 이 미지의 '행성 X'를 찾지 못하고 1916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로웰천문대에서 천문학을 연구하던 클라이드 톰보(1906~1997)가 1930년 '행성X'의 존재를 확인하고 'PLUTO'(플루토)라는 명칭을 얻었습니다. 플루토는 로마신화에 등장하는 지하세계를 지배하는 신의 이름입니다. 동양식 명칭 '명왕성(冥王星)'을 붙인 사람은 일본의 수필가이자 천문학자 노지리 호에이입니다. 명왕성의 '冥(명)'은 어둠과 저승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명왕성은 태양계의 아홉 번째 행성으로 자리 잡은 듯했으나 크기와 질량이 작은 탓에 2006년 국제천문연맹(IAU)이 행성의 정의를 새로 규정하면서 왜소행성으로 강등됐습니다.

뉴호라이즌스 호는 앞으로 태양계의 제3 지대인 '카이퍼 벨트'로 나아가 자료를 수집한다고 합니다. 태양계 바깥 세상에 대한 비밀이 풀리는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 국정원 해킹 의혹… 비밀의 '정원'



기자 수첩
윤 정 원
<정치부 기자>

예전에는 누군가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정원'이라는 내 이름을 소개하면 반응이 대개 비슷했다. 누구나 알만한 식품브랜드와 나를 묶곤 했다. 그러나 근래에는 반응이 크게 달라졌다. "궁금한 게 참 많은데 너에 대해 속 시원히 얘기 좀 해달라"는 식의 농담 아닌 농담을 듣는 횟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

최근 국가정보원이 이탈리아의 해킹팀사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이병호 국정원장은 해킹 프로그램에 대해 "2012년 1월과 7월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각각 10명씩 20명분의 프로그램을 구입했고 모두 북한 공작원을 상대로 쓰거나 연구·개발용으로 썼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은 삼성의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가 출시될 때마다 해킹 가능 여부를 해킹팀사에 문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카카오톡과 보이스톡(카카오톡 음성전화) 대화내용 기능 또한 물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은 일파만파로 번져 나갔다. 해킹 프로그램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여기에 국정원 직원 임 모 씨의 죽음까지 더해지니 의심은 무한대로 증폭할 수 밖에 없었다.

현재 안철수 의원을 필두로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국정원에 30여 개의 증거 자료를 요청하고 있지만 국정원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정보기관의 생명은 기밀 유지에 있기에 국정원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가 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추락하는 상황에서는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는 제출함이 옳다는 생각이다.

국가의 수장 역시 이 같은 사태에 표명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사태가 악화일로를 걸어도 침묵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지난 21일 오후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박 대통령은 국정원 해킹 문제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4대개혁에 대해서만 역설했다. 박근혜정부 들어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했지만 정부의 신속한 입장 발표와 대응은 본 사례가 없어 아쉬울 따름이다.

## 인 사

■ NH투자증권
△부장 선임 ▲IC영업6부 조영기 ▲업무시스템부 김기태 ▲Global Trading Center 이희연 ▲정보보호부 박성환 △부장 전보 ▲리스크지원부 이경수 ▲WM파생상품부 이수환 ▲IT품질기획부 정현민
■ 금융결제원
△승진 ▲상무이사 박연상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장 방윤석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장 송시화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조사과장 남일석
■ 부산경찰청
▲부산 중부경찰서 정보보안과장 노기수 ▲부산 해운대경찰서 교통과장 김정철 ▲부산 사상경찰서 수사과장 이승현 ▲부산 사상경찰서 형사과장 김영문 ▲부산 금정경찰서 112종합상황실장 박상선 ▲부산 금정경찰서 수사과장 성정규
■ 광주시
△2급(이사관)승진 ▲시민안전실장 이병렬 △3급(부이사관) 승진 ▲정책기획관 허익배 ▲문화관광정책실장 김일융 ▲도시재생국장 안용훈 ▲체육지원국장 홍화성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문범수 △3급(부이사관) 전보 ▲복지건강국장 염방열 ▲지방공무원교육원장 안치환 ▲서구 부구청장 정평호 ▲남구 부구청장 백봉기 ▲광주복지재단출범준비단장 박향 ▲행자부 전출 예정 김정훈 △4급(서기관) 승진 ▲문화예술진흥과장 문병재 ▲대중교통과장 송상진 ▲도로과장 조주환 ▲청년인재육성과장 이정석 ▲수영대회지원과장 박용규 기업육성과장 이석호 ▲종합건설본부 토목부장 박병량 ▲시립도서관장 안미영 ▲동구 국장요원 최광희 △4급 전보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이윤숙 ▲일자리정책관 이동진 ▲세정담당관 정찬성 ▲법무담당관 조윤식 ▲국제교류담당관 김석웅 ▲재난예방과장 김홍식 ▲재난대응과장 서병천 ▲문화산업과장 문정찬 ▲식품안전과장 허기석 ▲생태수질과장 고현종 ▲도시계획과장 이순남 ▲도시재생과장 박 산 ▲자치행정과장 오순철 ▲회계과장 김진수 ▲체육진흥과장 이효상 ▲U대회관리과장 윤재철 ▲지방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 한채석 ▲상수도 용연정수사업소장 범진철 ▲상수도 시설관리소장 김갑수 ▲도시철도건설본부 기술담당관 송형석 ▲문화예술회관장 박영석 ▲북구 국장요원 박주옥
■ 고려대
▲법과대학장 겸 법무대학원장 겸 법학전문대학원장 김규완 ▲교육매체실장 박재영

社 說

# 영혼을 팔아버린 국민연금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안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1일 토론회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해 공사로 바꾸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은 오늘날 500조원에 가까운 기금을 운용하는 대한민국의 대표펀드이다. 특히 국민의 재산을 맡아서 대신 운용하면서 노후생활을 책임지는 펀드이다. 국민연금이 부실하게 운영되면 국민의 노후생활이 불행해진다. 그렇기에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을 통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설치된 것이다. 기금운용본부는 장단기 수익전망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최선의 투자결정을 내리고 실행해야 한다. 말하자면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의 투자방향을 결정하는 '영혼'이나 다름없다.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도 근본적으로 이런 영혼을 돌보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지난 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주주총회에서 합병안에 찬성해 버렸다. 합병안에 반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전문가 집단의 권고를 애써 무시함은 물론 자문기관인 의결권위원회까지 제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주주총회가 끝난 이후 지금까지도 왜 굳이 찬성을 했는지 밝히지 않고 있다. 그 이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주가는 기대와 달리 떨어지고 국민연금도 3000억원 넘는 손실을 봤다. 국민연금의 판단을 믿고 두 회사의 주식을 사들인 소액주주들도 손해를 입었다. 국민연금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국민연금이 영혼을 팔아 연금기금과 소액주주에게 손실을 끼쳤음은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린다면 기금운용본부가 그 어떤 형태로 개편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공사로 바뀐다고 팔아버린 영혼이 되돌아올까? 오히려 기금운용본부의 몸집을 불필요하게 확대해서 기금을 갉아먹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국민연금이 조직을 꼭 바꾸고 싶거든 이같은 의문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부터 내놓아야 한다.

# 국제계약과 분쟁해결조항



김재헌 변호사의
BizLaw

국제계약을 체결할 때 한국기업이 늘 고민하는 것이 분쟁해결조항이다. 분쟁해결조항이란 거래를 진행하다가 분쟁이 생기게 된 경우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 것인가를 계약당사자가 미리 합의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이다.

분쟁해결조항은 일반적으로 중재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는 경우와 소송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는 경우로 나뉜다.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경우 외국의 판결을 집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하는 반면에 중재의 경우는 대부분의 나라가 '뉴욕협약'(New York Convention)이라는 국제조약에 가입하고 있어서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이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국제소송의 경우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중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어디에서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

한국의 A사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기업과 국제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계약조항에는 뉴욕 중재조항이 있었다. A사는 뉴욕에서 중재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서울에서 중재를 하자고 제안하였는데 미국기업은 이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A사는 미국기업이 A사를 상대로 중재를 제기해 온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 다음 마지 못해 뉴욕중재조항을 수용하였다.

A사가 뉴욕 중재조항에 동의한 것은 분쟁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분쟁이 생기더라도 큰 손해가 생기지 않으리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즉 분쟁이 생기면 뉴욕 중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겠다는 자세가 아니고 혹시 상대방이 싸움을 걸어 오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자는 소극적인 자세를 가진 것이다. 해외에서 진행하는 법적 절차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그런데 A사가 원했던 대로 서울에서 중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집행은 어차피 해외에서 해야 하는 것이다. 전세계가 하나로 되고 있다. 국제거래를 하면서 해외에서의 법적 절차를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해외로 뻗어나갈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해외소송과 해외중재에 대한 울렁증은 반드시 해소되어야만 한다.

| 스마트물류 벤처기업 육성 | 창조경제 물류파트너 | 한중 교류 협력 특화 플랫폼 구축 |

# 혁신적인 스마트물류로 인천이 창조경제를 세계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스마트물류 혁신에 앞장서는 지역의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최적의 물류솔루션으로
창조경제 성과의 글로벌 진출 플랫폼 구축까지-
든든한 글로벌 물류파트너,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한진**이 힘을 모아
세계 속에 창조경제의 무한 가능성을 열겠습니다.




| 첨단 물류기술 기반 신산업 창출 • 물류와 IT기술 융합을 통한 스마트물류 벤처 육성 • 항공 엔진 정비기술 등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 창출

| 중소·벤처 수출 물류 경쟁력 제고 • 중소·벤처기업 종합 물류 컨설팅 제공 • 신선 농수산식품 해외 수출 지원

| 한중 교류 협력 특화 플랫폼 구축 • 중국 진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중국 온라인 쇼핑 이용자 대상 e-커머스 창업 지원 • 공동브랜드 개발·인증을 통한 대중국 수출 지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HANJIN GROUP